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 별책부록: 친구들 · 2009년 10월호

리아호나

성전의 축복, 7~21

선지자와 같이 성역을 베풂, 26, 30, 친2

미운 오리 새끼가 없는 이유, 36

토르티야 기적과 성전, 친6

"이 필멸의 삶에서 받는 가장 큰 축복을 꼽으라면 성전에 가서 성스러운 성약을 맺는 것을 들겠습니다. 성약을 맺은 후 우리는 성약에 따라 하루하루 생활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신앙과 사랑, 헌신, 영적인 결심을 증명하게 됩니다."
"성전의 축복", 12쪽 참조

KOREAN
4 15042 90320 0
04290 320

성인

제일회장단 메시지

2 **순종이 가져오는 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방문 교육 메시지

25 **자라나는 세대를 양육하십시오**

특집 기사

12 **성전의 축복**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이 필멸의 삶에서 받는 가장 큰 축복을 꼽으라면 성전에 가서 성스러운 성약을 맺는 것을 들겠습니다.

16 **봉사는 나의 특권입니다** 마이클 알 모리스
브라질 레시페 성전에서 매일 봉사하는 마리아 호세 데 아라우효 자매는 성전에서 정기적으로 예배하는 사람은 성전 예배의 진정한 의미와 힘을 이해하게 된다고 말한다.

18 **성전을 찾는 사람들** 라이언 카
가족 역사 사업, 우정 증진,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통해 영감을 받은 한 와드의 회원들이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게 된 이야기.

22 **새로 출간된 복음 그림책** 마이클 지 매드슨
100여 개 그림과 사진을 담아 저렴한 가격대로 출간된 그림책은 우리가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유용하게 쓰일 것이다.

26 **보살핌의 축복**
와드 회원의 삶을 변화시킨 후기 성도에 관한 네 가지 이야기

30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다니엘 엘 존슨 장로
우리가 "찾아가[는]" 양들은 "[소중한 주님]의 양들"이다. 주님은 형제와 자매를 되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인도해 주시고 영감을 주실 것이다.

특집란

44 **후기 성도의 소리**
신을 믿지 않았던 한 사람이 숲 속에서 드린 기도, 성전에 대해 궁금해하며 특별한 것을 느끼고자 하는 소망, 인종을 뛰어넘은 추수감사절 저녁

48 **이번 호 활용하기**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과 이번 호의 주제들

청소년

특집 기사

7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다** 발레리아 살레르노
대리 침례 의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면서 짜증이 났다. 하지만 이내 우리가 의식을 대신 해주기를 기다리는 영들은 수세기 동안 기다려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8 **평화의 장소** 리차드 엠 롬니
아름다운 건물, 또는 소망과 꿈을 일깨워 주는 성스러운 건물은 어디인가? 어떤 청소년들에게는 성전이 그러한 장소이다.

36 **미운 오리새끼인가, 당당한 백조인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에롤 에스 피펜 장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된 아들 또는 딸들입니다. 여러분 내면에 있는 성스러운 잠재력을 성취할 수 있도록 선택하십시오.

40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재닛 토마스
오타와 온타리오 스테이크 청소년들이 기도하며 얻은 치유와 평안, 강한 간증을 나누며 "기도는 몸으로 익혀야 할 중요한 습관이에요" 하고 말했다.

특집란

24 **포스터: 덕–중요한 표준**

34 **질의응답**
저는 형제 자매들과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막내입니다. 그래서 같이 활동을 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항상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런 관계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표지
앞: 사진 삽화: 매튜 레이어. 뒤: 로스앤젤레스 캘리포니아 성전의 벽; 파나마시티 파나마 성전의 문 사진, 매튜 레이어; 사진 복사 금지.

비밀 하나 말해드리죠
단 널리 퍼뜨려 주세요

리아호나가 새로운 모습으로 2010년에 도착합니다.

1월을 기점으로 여러분이 받게 될 리아호나에 일대 변화가 일게 됩니다. 당연히 좋은 방향으로 말입니다. 그러한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목차와 해당란 제목이 독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변경됩니다.
- 특별히 청소년을 위한 난에 변화가 있게 됩니다. 성인을 위한 난에도 변화가 있을 예정입니다.
- 모든 연령대의 독자들이 공감할 일부 기사와 더불어 가족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과 그 과정에서 얻는 가르침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 신회원을 위한 내용

누구나 좋아하는 기존 기사들, 즉 제일회장단 메시지, 방문 교육 메시지, 후기 성도의 소리, 질의 응답은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구성되며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갈 것입니다.

여러분을 놀래켜줄 수도 있었겠죠. 새로운 리아호나로 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과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이 구독이 만료되어 새로운 리아호나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막고자 미리 알려드립니다.

사진 삽화: 웰든 시 앤더슨

2009년 10월호, 제46권, 제10호
리아호나 04290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 판 공식 잡지임

제일회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댈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밸라드,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스펜서 제이 콘디
고문: 키스 케이 힐비그, 요시히꼬 기꾸찌, 폴 비 파이퍼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엘 프리쉬네히트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선임 편집인: 래리 힐러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제니퍼 엘 그린우드, 아담 시 올슨
공동 편집인: 라이언 카
보조 편집인: 수잔 배렛
편집 스탭: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튼
라렌 포터 곤트, 캐리 캐스틴, 제니퍼 매디, 멜리사 메릴, 마이클 알 모리스, 샐리 제이 오데커크, 주디스 엠 팔러, 조슈아 제이 퍼키, 채드 이 패러스, 잰 핀보로우, 리차드 엠 롬니, 돈 엘 설,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워델
선임 비서: 로렐 튜셔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캠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탭: 캘리 알 이로요, 콜레트 네베커 오운, 하워드 지 브라운, 줄리 버넷,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날드 제이 크리스턴슨, 킴 핀스터마커, 캐슬린 하워드, 에릭 피 존슨, 드니스 커비, 스코트 엠 무이, 지니 제이 날슨
사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랜디 제이 벤슨

통 권: 제519호, 제46권, 제10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9년 10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 동 환
편집인: 박 승 호
번역 책임자: 조 현 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ds.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ds.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 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5,000원,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8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판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몰몬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마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신할라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랜드어, 알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밀어, 타이어, 타히티어, 텔루그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하이티어, 헝가리어, 힌디어 (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09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October 2009 Vol. 33 No. 10.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어린이

친2 **와서 선지자의 음성을 들으라**
선지자의 사랑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특집 기사
친6 **토르티야로 일군 기적** 제인 맥브라이드 코아트
친13 **성전 대지 청소하기** 조슈아 제이 퍼키

특집란
친4 **함께 나누는 시간: 우리는 가족이 하나님께서 제정하여 주신 것임을 믿어요** 췌럴 에스플린
친8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너그러운 사람**
친10 **예수님처럼 될 거예요**
친12 **음악: 주님의 신권**
존 크레이븐
친14 **친구가 친구에게: 성전은 하니님 아버지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요시히꼬 기꾸찌 장로
친16 **색칠하기**

친구들 표지
삽화: 크레이그 스테이플리

이번 호에 숨겨진 피지어 정의반 반지를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의를 선택하듯이 올바른 페이지를 선택해 보세요!

애독자 편지

질문에 대한 해답

이 훌륭한 잡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에 실리는 간증, 새로운 정보, 경전에 대한 설명, 공과를 가르칠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등을 볼 때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어떤 질문을 여쭈었을 때 성신의 인도를 받아 리아호나에서 그토록 찾고 싶었던 해답을 얻은 적이 무척 많았습니다. 언제나 리아호나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에브제니자 사마르스카자, 러시아

리아호나를 찾아서 기뻐요

저는 리아호나를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한 번에 다섯 부를 구독한 적도 있습니다. 남는 리아호나는 이웃에게 선물로 주었습니다. 이웃 중 한 사람은 피곤에 지쳐 퇴근하는 길에 우편함에 꽂혀 있는 리아호나를 발견하면 마음이 행복해진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총관리 역원이 전하는 메시지부터 일반 회원이 겪은 일화까지, 리아호나에 실린 모든 내용은 영감에 따라 기록되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리아호나를 읽으면 새로운 지식과 축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잘 이해하게 됩니다.

베르다 비올라 레티즈 에스피노, 멕시코

여러분의 의견과 제안을 liahona@ldschurch.org 로 보내 주십시오.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내용은 편집될 수도 있습니다.

VENEZUELA

순종이 가져오는 힘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지금 이 세상은 젊음을 강조합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젊어 보이고 젊음을 만끽하고 실제로 젊어지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한때 젊었던 모습을 되찾으려는 소망으로 이런 저런 제품에 매년 상당한 돈을 소모합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젊음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 시대, 즉 우리 세대에 나타난 새로운 풍조인가?" 해답을 찾으려면 지난 역사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수세기 전, 참으로 대단했던 탐험의 시대에는 누구나 채비를 갖추어 모험에 뛰어들었습니다. 자신만만해하며 모험을 즐기던 선원들을 가득 실은 배들이 실제로 젊음을 주는 샘을 찾아 미지의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저 멀리 "위대한 어느 곳에"는 가정 정결한 물이 흐르는 마법의 샘이 있어서 젊음으로 활력을 되찾게 한다는 전설이 그 시대의 약속으로 떠돌았습니다. 영원히 젊음을 유지하려면 그 샘물을 마시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콜럼버스와 함께 항해했던 폰스 드 레옹도 항해를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젊음의 묘약이 있다는 전설을 믿은 그는 바하마와 카리브해 지역을 탐험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랬던 것처럼 레옹도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그런 약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명백합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에 따라 우리는 이 필멸의 삶에서 한 차례만 젊음을 만끽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진리의 샘

우리가 애써 찾아야 할 젊음의 샘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소중한 물이 흐르는, 즉 영생의 물이 흐르는 샘은 있습니다. 바로 진리의 샘입니다.

한 시인은 진리를 찾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점을 잘 포착하여 불멸의 시구를 남겼습니다.

말해 보아라 무엇이 진리냐
신이나 사람 원하는 상
반짝이는 진리 우리 찾으리니
깊은 데나 높은 데나 나가리라
귀하고 귀한 소망일세
때를 초월한 진리는 무어냐
만물의 시종되는 진리
천지 다 무너지고 또한 멸해도
진리만이 모든 것 이기고
영원히 영원히 빛나리[1]

1833년 5월,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조셉 스미스를 통해 주님은 다음과 같이 계시하셨습니다.

"진리는 사물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식이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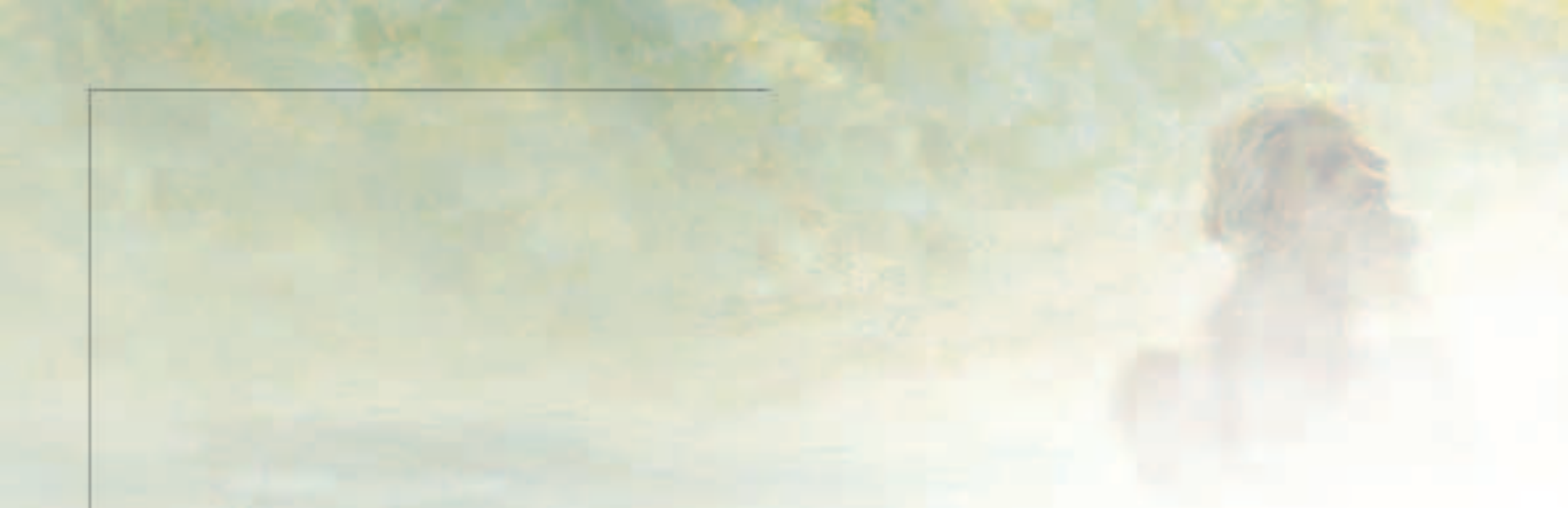
"진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라. …… [예수]는 …… 진리의 충만함을 받았다 하였느니라.

"그리고 어느 사람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충만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진리와 빛을 받나니,

진리의 샘을 찾으려고 미지의 바다로 항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을 계획하셨고, 그와 더불어 결코 길을 잃지 않을 지도도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지도는 바로 순종입니다.

왼쪽: 사진 촬영, 매튜 레이어; *그리스도의 이미지*, 하인리히 호프만, 그림 제공: C. Harrison Conroy Co; 오른쪽: 삽화, 제리 톰슨



드디어는 진리로 영화롭게 되며, 모든 것을 알게 되느니라."[2]

빛으로 교화된 시대, 즉 충만한 복음이 회복된 오늘날, 진리의 샘을 찾기 위해 저나 여러분은 미지의 바다를 항해하거나 발을 디딘 적이 없는 도로로 여행을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가야 할 여정을 계획하셨고, 그와 더불어 절대 길을 잃지 않도록 지도도 마련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지도는 바로 순종입니다.

주님께서 계시하신 말씀에는 순종할 때 얻는 축복과 더불어 그에 반대되는 길도 함께 언급되어 있습니다. 정도에서 벗어나 죄와 실수라는 금지된 길을 걷는 사람이 겪는 고뇌와 절망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동물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전통에 길들여진 세대에게 사무엘은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3]

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선지자들은 순종할 때 얻는 힘을 익히 알았습니다.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4] 몰몬은 모사이야의 아들들이 얻은 힘을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지식에 있어 강해져 있었나니, 이는 그들이 온전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부지런히 경전을 상고하였음이라.

"그러나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 그들은 많은 기도와 금식에 힘썼었고 그리하여 예언의 영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어,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가르쳤더라."[5]

계명을 지키십시오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회장님은 연차 대회 개회 말씀에서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침을 아주 간단하면서도 힘있게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십시오."[6]

"이는 내 손에서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모두 그 축복을 위하여 정해진 율법과 그 조건을 창세 이전부터 제정된 대로 마땅히 지켜야 함이니라."라는 구주의 말씀에서도 핵심은 곧 순종입니다.[7]

구주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살펴보면 그 말씀을 더욱 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완벽한 삶을 사신 그분은 성스러운 사명을 수행하여 하나님에 대한 진실된 사랑을 증명하셨습니다. 오만하거나 교만으로 자만해지신 적이 한번도 없으십니다. 불충실한 적도 없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겸손하고 거짓 없는 분이십니다. 또한 진실하십니다.

기만의 최고 권위자인 악마가 유혹하며 다가왔을 때에도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40일 주야를 금식하여 육체적으로 약해진 "후에 주리[신]" 상황에서 가장 거절하기 어려운 부분을 사탄이 유혹했을 때에도 그분은 의로운 길에서 벗어나길 거부하시고 순종이라는 신성한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8]

겟세마네 동산에서 극심하게 고뇌하며, 그 고통에 모든 땀구멍에서 피가 흘러서 땅에 떨어지던 순간에도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면서 순종하는 아들로서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9]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에게도 같은 권유를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세관에 앉아 있던 세리 레위에게도 똑같이 권고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심지어 예수님을 황급히 쫓던 부자 청년에게도 같은 권고를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10] 여러분과 저에게도 예수님께서 똑같이 제안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갈릴리에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빌립에게도 똑같이 권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께서 똑같이 제안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순종은 선지자들이 보이는 특성입니다. 하지만 그 힘의 근원은 우리에게도 허락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현대의 모범

순종이 전해 주는 교훈을 배우고 진리의 샘을 찾았던 사람이

세부 확대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는 그리스도, 제임스 태멀리 헤이우드, 그림 제공: 교회 역사 박물관

있습니다. 그는 재산과 주변 환경은 보잘것없지만 친절하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럽에서 교회에 가입했고, 큰 희생을 치르며 돈을 열심히 저축하여 북미로 이민했습니다. 북미는 새로운 땅과 낯선 언어, 상이한 문화로 가득한 곳이었지만 교회는 그가 믿고 순종하는 주님께서 인도하는 동일한 교회였습니다. 그는 분위기가 냉랭한 한 도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작은 지부의 지부 회장이 되었습니다. 지부 회원 수가 적고 할 일은 많았지만 항상 교회 프로그램을 준수했습니다. 지부 회원들에게 진정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모범을 보여 주었고, 그 모습을 본 회원들도 이전과는 다르게 사랑으로 지부 회장을 대했습니다.

그 지부 회장은 손수 상점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렸습니다. 수입은 넉넉하지 않았지만 완전한 십일조를 거른 적이 없었습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더 많은 금액을 기부했습니다. 작은 지부에서 선교사 기금도 마련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났지만 선교사 기금을 내는 사람은 혼자뿐이었습니다. 선교사가 그 도시에서 봉사할 때면 그는 음식을 대접했고, 그의 집을 방문하는 선교사들은 어김없이 선교

사업과 자신들의 복지에 대해 눈에 띌 정도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먼 곳에서 이 도시를 지나는 교회 회원들도 그 지부를 방문하면 어김없이 큰 환대를 받고 따뜻한 영을 그에게서 느꼈습니다. 이런 그들은 그곳을 떠나며 정말 특별한 사람, 즉 주님께 순종하는 그분의 종을 만났다고 느꼈습니다.

그 지부 회장을 감리하던 역원들도 그에게서 깊은 존중과 특별한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역원들을 주님의 사자로 여겼습니다. 역원들이 신체적으로 편안하도록 배려하고 그들의 복지를 염려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는 자주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한번은 몇몇 지도자들이 그 지부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지부 회장과 다양한 모임에 참석하고 회원들을 방문하면서 지부 회장이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열두 번 정도 지켜보게 되었습니다. 지도자들이 하루 일정을 마치고 그곳을 떠날 때에는 마음이 기쁨에 찼고 영은 고양되었습니다. 쌀쌀한 겨울 날씨에 네 시간이나 운전해야 했지만 마음은 즐거웠습니다. 긴 세월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그때를 떠올리면 영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훈훈해집니다.

학식이 뛰어나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도 많이 배우지 못했으나 겸손한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고 애를 썼습니다. 단 한 시간만이라도 같이 보내게 되면 운이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게 생긴 그 사람을 말입니다. 영어도 더듬거리는 정도만 할 수 있어서 이해하기가 조금 힘든 그 사람을 말입니다. 수수한 집에는 차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습니다. 책을 집필한 적도 없고 화려한 미사여구를 곁들이며 연설을 한 적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을 끌 만한 일을 한 적이라고는 없습니다. 하지만 충실한 사람들은 그 집을 찾아 나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진리의 샘에서 흡족히 취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며 사람들은 감사해했습니다. 그가 가르친 설교 내용이 아닌 그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힘에 고마워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이 꾸준하게 기쁜 마음으로 적어도 자신의 십일조의 두 배를 주님께 낸다는 것을 생각하면 십일조의 의미를 더 깊은 안목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굶주린 이를 보살피고 낯선 사람을 거두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주님을 대하듯 그들을 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기도하고 확신에 찬 마음으로 신성한 교감에 함께 동참할 때 주님과 대화하는 새로운 방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크고 첫째 되는 계명과 둘째 계명도 잘 지켰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11]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슴에 가득 찼던 그 사람은 쉬지 않고 덕으로 생각을 장식하여 하나님의 면전에서 확신이 점점 강해졌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12]

이러한 사람에게서는 선한 빛이 발하고 의로운 광채가 비칠 것입니다. 그러한 힘은 바로 순종에서 왔습니다.

복잡하고 급변하는 세상에서 어려움을 헤쳐 나갈 힘을 진지하게 구하는 사람은 여호수아가 했던 다음 말을 굳은 결의와 용기로 외치면서 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13] ■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메시지를 공부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격려하면서 메시지를 나눈다. 다음에 제시된 몇 가지 예를 따를 수 있다.

1. 시각 자료를 사용하려면 물이 든 용기를 준비한다. 폰스 등 레옹의 일화를 나누고 "더 소중한 물, 즉 영생의 물이 흐르는 샘이 있으며 그 샘은 바로 진리의 샘"이라고 설명한다. 가족과 함께 진리를 찾을 수 있는 장소와 방법, 그리고 몬슨 회장님의 말씀 중에서 "진리의 샘"에 이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한다고 제시된 내용에 대해 함께 토론한다.

2. "계명을 지키십시오" 부분을 읽은 후, 몬슨 회장님이 던진 질문인 "우리는 기꺼이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에 대해 토론한다. 겸손한 지부 회장의 일화를 함께 나눈다. 지부 회장이 기꺼이 구주를 따르려고 순종한 것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축복이 되었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 주님을 기꺼이 섬기겠다는 결의에 따라 실천해 보라고 권유한다.

주

1. 존 자크, "말해 보아라 무엇이 진리냐?" *찬송가*, 153장.
2. 교리와 성약 93:24, 26~28.
3. 사무엘상 15:22.
4. 니파이전서 3:7.
5. 앨마서 17:2~3.
6. 데이비드 오 맥케이, Conference Report, 1957년 4월, 8쪽; 또는 *Improvement Era*,1957년 6월호, 391쪽.
7. 교리와 성약 132:5.
8. 마태복음 4:1~11 참조.
9. 누가복음 22:42.
10. 마태복음 4:19;9:9;요한복음 1:43;또한 마태복음 19:16~22 참조;마가복음 2:14;누가복음 18:18~22.
11. 마태복음 22:37~40참조.
12. 교리와 성약 121:45 참조.
13. 여호수아 24:15.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다

발레리아 살레르노

죽은 자를 위한 대리 침례를 받으려고 와드 청소년들과 함께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성전에 갔다. 성전에 들어선 우리는 대기실에서 몇 분간 기다렸다. 그러자 성전 봉사자가 통로를 따라 가면 의자가 꽤 있으니 거기서 기다리라고 일러주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성전은 아르헨티나 전역에서 온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우리는 두 시간 30분 동안이나 조용히 앉아서 기다려야 했다. 그러자 불쾌한 생각들이 내 마음속을 비집고 들어와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 '어쩌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기다리게 하지? 이젠 몸도 피곤한데 말이야. 오지 않는 게 좋을 뻔 했어. 이건 완전히 시간 낭비잖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통로를 따라 걸었다. 그러자 봉사자 중 한 분이 다가와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짜증 내지 말고 좀 참아요. 오랜 시간 기다린 거 알지만 혹시 이거 생각해 봤나요? 영의 세계에서는 수백만 명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해 몇 천 년씩 기다리죠. 틀림없이 영들도 자기 차례가 빨리 좀 왔으면 하고 안절부절하고 있을 거예요. 침례를 주고 확인을 하는 형제들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는 창피했다. 잠시나마 내가 너무 이기적이었다는 생각도 들었다. 나처럼 참된 교회에 대해 듣고 지상에서 침례를 받을 기회가 없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린 영들에게 단 몇 시간을 내주는 데 그렇게 인색했으니 말이다.

봉사자가 다시 나와서 명단에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딱 맞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괜찮은 흰 침례복을 하나씩 건네주셨다.

사진 삽화: 존 사물디오

우리가 옷을 다 입자, 머리를 빗겨 올려서 흰 끈으로 묶어주셨다.

준비를 마친 우리는 맨발로 침례실에 마련된 의자 쪽으로 걸어갔다. 양탄자가 정말 부드럽고 푹신했다. 땅을 딛고 걷는 것 같지가 않았다.

드디어 내 순서가 되었다. 마치 내 침례라도 받는 양 마음이 떨렸다. 봉사자들은 무척 친절하셨고,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큰 인내심을 보여 주셨다. 정말로 굉장한 기분이었다.

침례탕에서 나오자 커다란 흰 수건을 들고 함박웃음을 한 자매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옷을 갈아입고는 확인실로 들어갔다. 수건을 주셨던 자매님이 함께 걸으시면서 주님의 사업에 기꺼이 동참해 주어서 고맙다고 말씀해 주셨다.

성전에서 나왔을 때, 나는 그날이 내 생애에서 최고의 날이라는 걸 깨달았다. 성전은 거룩한 곳이다. 그리고 주님의 영이 그곳에 함께 하시어 그분의 사업을 인도하신다. 정말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었다. ■

평화의 장소

리차드 엠 롬니
교회 잡지

열여섯 살인 딜시아 소토는 고향인 산토도밍고에서 성전이 헌납되던 날을 기억한다. "그때 저는 아홉 살이었어요.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나요. '와, 여기에도 성전이 생기는구나!' 인봉 받고 성약을 맺으러 다른 나라로 가는 회원들 모습을 많이 보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성전이 생겼으니 우리 가족은 다른 나라로 가지 않아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죠."

도미니카공화국 수도에 세워진 이 성전은 멋지게 가꾼 대지

도미니카공화국의 두 청녀에게 성전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건물이 아니다. 성전은 곧 청녀들에게 꿈과 희망이다.

사진 촬영: 리처드 엠 롬니

위에 첨탑을 올리고 서서 장엄하고 웅장한 자태를 뽐낸다. 성전 주변을 지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곳이 성당이 아닌가 하고 착각을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 딜시아는 들뜬 마음으로 이곳은 성당보다 훨씬 더 성스러운 장소라고 일러 준다. 성전 뜰에 서면 조용하면서도 근엄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시내 길거리나 시장에서 느끼는 떠들썩한 분위기와는 사뭇 대조된다.

딜시아와 열네 살인 친구 켈시아 성 가디엔은 얼마 전에 이 평화의 장소를 방문했다. 두 청녀는 모두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 인데펜덴시아 스테이크 미라도 와드의 회원이다. 전에는 대리 침례를 받으러 성전에 왔지만 이번에는 그저 성전 뜰을 거닐고 대화하며 성전 안에 있는 영을 밖에서도 느끼려고 방문했다.

딜시아의 소망

"저는 구주를 무척 사랑해요. 그분께서 제 삶에 해 주신 일들이 정말 고마워요." 하고 말문을 연 딜시아는 이렇게 덧붙였다. "우리 가족은 교회

회원이에요.
하지만 이모와 삼촌,
사촌들은 회원이 아니죠.
그래서 친척들이 우리 집에
올 때면 빠트리지 않고
몰몬경을 준비해 두어요.
복음을 나눌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딜시아는 또한
친구들이나 "만나는 사람 중에
정말로 관심을 보이는 사람과도"
복음을 나눈다. 복음을 나눌 때면
딜시아는 이렇게 느낀다고 한다. "영을 아주
강하게 느껴요. 간증을 나누면서 언제나
교회가 참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죠."

딜시아는 세미나리 시간에 배운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기억한다. "이 세상이 있기 전에 우리는
천국 회의에 참석했고,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겠다는 선택을 했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선생님은 우리가 지상에서 살과 뼈로 된 몸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다는 사실이 그때 당시에
하나님 아버지를 선택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을 때 그게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날 밤에 기도를 드리면서
고마운 마음에 울음이 났어요. 이런 진리를
알려주셔서 감사하다고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렸죠."

딜시아가 인용한 구절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딜시아가 인용한 구절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딜시아는 이렇게 말한다. "제 몸이
성전이라면 성전처럼 깨끗하고 아름다워야 하죠.
교회에 속해서 고결한 여성이 될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축복이에요!"

우리 마음 속에 세워진 성전

"시간과 상황이 허락하는 한 자주 성전을 방문한다면 성전은 우리 안에 세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곤고한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늘 거룩한 곳에 거할 수 있습니다.

칠십인이었던 랜스 비 위크맨 장로, "너희는 거룩한 곳에 설지니", *성도의 벗*, 1995년 1월호, 83쪽

딜시아 마음 속에 있는 가장 큰 소망은 하나님
아버지와 다시 사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완수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전을 마련해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이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하는 방법은
바로 구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딜시아는 또한 이렇게 덧붙인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집에 들어가서
그분에 대해 배우고 열심히 노력해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세요." 딜시아는 죽은 자를 위해 침례 받는
일을 좋아한다. "휘장 저편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이
직접 하지 못하는 일을 대신 하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고 딜시아는 설명한다.

켈시아의 결심

켈시아도 딜시아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조상들에게는 우리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고마워하시겠죠. 특별히 저는 아직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할머니를 만나볼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려면 할머니에게 필요한

모든 성전 의식을 제가 완수해야겠죠.”

성전에 대해 말하자 켈시아는 마음이 뭉클해진다. “가족과 인봉되도록 올바른 결정을 내리겠다는 결심을 했어요. 복음을 존중하고 계명을 *al pie de la letra*[문자 그대로] 지켜야 하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순종은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켈시아의 가족은 하이티에서 도미니카공화국으로 이주한 후에 6년이 지난 2006년 12월에 교회에 가입했다. “저희 집에 문을 두드린 선교사님들에게 정말로 고마워요. 영을 느끼면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계획을 배울 때 정말로 대단했죠. 복음이 우리 삶에 스며든 후 가족과 훨씬 더 가까워졌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가족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요. 영원히 인봉된다는 그 특권은 정말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요?”

켈시아의 부모는 현재 성전 준비반 수업을 듣고 있다. 켈시아도 성전에서 결혼할 날을 떠올리며 준비를 해야 한다고 다짐해 본다. “지금 저에게는 중요한 목표죠. 미래에 만날 남편과 제가 서로를 위해 합당해야 해요. 영원한 가족이 될 수 있도록 합당해야 하죠.”

함께 나누는 평온

친구와 함께 세찬 바람에 휘날리는 국기 옆을 지나던 딜시아는 이렇게 말했다. “성전에 걸려 있는 국기만 생각해도 제가 정말 충실해야겠구나 하고 생각한답니다. 우리 나라 국기는 단순한 깃발이 아니에요. *Dios, patria, libertad*[하나님, 국가, 자유]라는 중요한 문구가 적혀 있고 십자가와 십계명이 보이죠. 국기를 보면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나라를 세웠고, 이 나라에서 하나님이 아직도 중요하신 분이라는 걸 깨달아요.”

두 청녀가 거니는 성전 입구에 *Santidad al Senor, la Casa del Senor*[주님께 거룩함, 주님의 집]이라는 문구가 보인다. 모든 성전에는 그 문구가 새겨져 있다.

딜시아는 이렇게 말한다. “이 문구를 읽을 때마다 그 말이 정말 참되다는 강한 증거를 느껴요. 상호향상회 청소년들과 성전 뜰을 거닐기 위해 함께 저녁 시간에 성전을 방문한 적이 있어요. 모임을 마친 후에 감독님이 어떤 걸 느꼈냐고 물으셨는데,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한 마디로 결론을 내렸어요. 바로 평화였죠.”

켈시와와 딜시아는 그 완벽한 한 단어를 생각하며 그곳에서 발걸음을 돌렸다. …… 평화의 장소인 성전에 딱 맞는 완벽한 단어가 아닌가 싶다.

도미니카공화국에서 활동하는 교회 청소년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다면 2009년 3월호에 실린 “찾고 구조함”을 참조한다.

성전의 축복

성전은 성스러운 건물이자 거룩한 장소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승영을 위한 필수적인 구원 의식을 집행합니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성전 엔다우먼트를 통해 받는 축복은 침례만큼이나 우리에게 필수적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자신을 깨끗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이 필멸의 삶에서 받는 가장 큰 축복을 꼽으라면 성전에 들어가서 성스러운 성약을 맺는 것을 들겠습니다. 성약을 맺은 후 우리는 성약에 따라 하루하루 생활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신앙과 사랑, 헌신, 영적인 결심을 증명하게 됩니다. 이렇게 순종하면 그분들과 영원히 살 수 있게 준비됩니다. 성전에서 집행되는 구원 의식은 영원한 행복의 계획에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일 뿐 아니라 핵심이기도 합니다.

성전의 교리

성전은 정말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장소입니다. 어려움을 겪거나 심신과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는 중요한 결정 같은 근심거리를 마음에 품고 성전에 가면 영적인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전이 주님의 집이라는 간증을 얻고 경건한 마음을 유지해야 합니다. 성전이 성스러운 곳이 되도록 보존하고, 의식을 받아 성약을 맺으러 성전에 오는 이들이 영으로부터 축복 받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깨끗하지 못한 것이 성전에 들어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성전이 경건하도록 유지하는 일은 매일 매시간 영이 그곳에 거하게 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뉴욕 롱아일랜드에 살던 어린 시절에 아버지는 저를 데리고 솔트레이크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성전 뜰에서 우리는 함께 걷고 성전을 만져보고, 제 삶에서 성전이 차지할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꼭 다시 돌아와서 성전 의식을 받아야지.'

경륜의 시대마다 주님은 선지자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분의 백성이 성전 의식을 받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라는 이동식 성전에서 모세 율법에 따라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그곳을 방문하여 모세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솔로몬 왕은 예루살렘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지만 후에 이 성전은 파괴되고 맙니다. 그 후 그리스도께서 성역을 베푸시던 때에 예루살렘에는 또 다른 성전이 건축되고 있었습니다.

몰몬경에서는 니파이가 "솔로몬 성전의 방식을 따라" 성전을 건축했다고 나와 있습니다.(니파이후서 5:16)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친 선지자들도 있는데, 야곱과 베냐민 왕을 꼽을 수 있습니다.(야곱서 1:17; 모사이야서

솔트레이크 성전 사진 촬영: 웰든 시 엘더슨; 오른쪽 사진 삽화: 존 루크

1:18 참조)

성전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으로, 기원후 34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니파이인을 방문하실 때 성전으로 오신 것을 들 수 있습니다.(제3니파이 11:1~11 참조)

조셉 스미스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습니다. "성전이 건축되어 신권 의식을 집행할 장소가 마련되지 않는 이상 교회가 올바른 질서에 따라 완전히 조직된 것이 아니며, 그럴 수도 없습니다."[1]

커틀랜드 성전은 후기에 세워진 첫 번째 성전이며, 그런 연유로 신권 회복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836년 4월 3일, 조셉 스미스가 커틀랜드 성전에서 기도를 드렸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10편 참조) 영광 속에 나타나신 주님은 커틀랜드 성전을 그분의 집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또한 모세와 일라이어스, 엘리야도 열쇠를 부여하기 위해 그곳을 방문했습니다. 엘리야는 말라기가 전한 약속처럼 인봉 권능의 열쇠를 회복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이 생애에서 성전에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선조들인 우리 개척자들은 나부 성전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했습니다. 나부 성전은 엔다우먼트와 인봉 의식을 집행한 최초의 성전입니다. 개척자들은 대평원을 건너 솔트레이크 계곡까지 가는 여정에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역경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식을 받으면서 역경을 이겨낼 큰 힘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들은 거룩한 성전에서 권능을 받았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인봉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인봉되었습니다. 그 여정을 헤쳐 나가며 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영원히 인봉되었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이라는 이동식 성전에서 모세 율법에 따라 성스러운 의식을 집행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때때로 그곳을 방문하여 모세와 대화를 나누기도 하셨습니다.

때문입니다. 후에 성도들은 브리검 영 회장이 받은 계시에 따라 서부에 더 많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는 130개 성전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회의 충실한 성도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의 집에 가서 성전 의식을 받고 그분과 성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성전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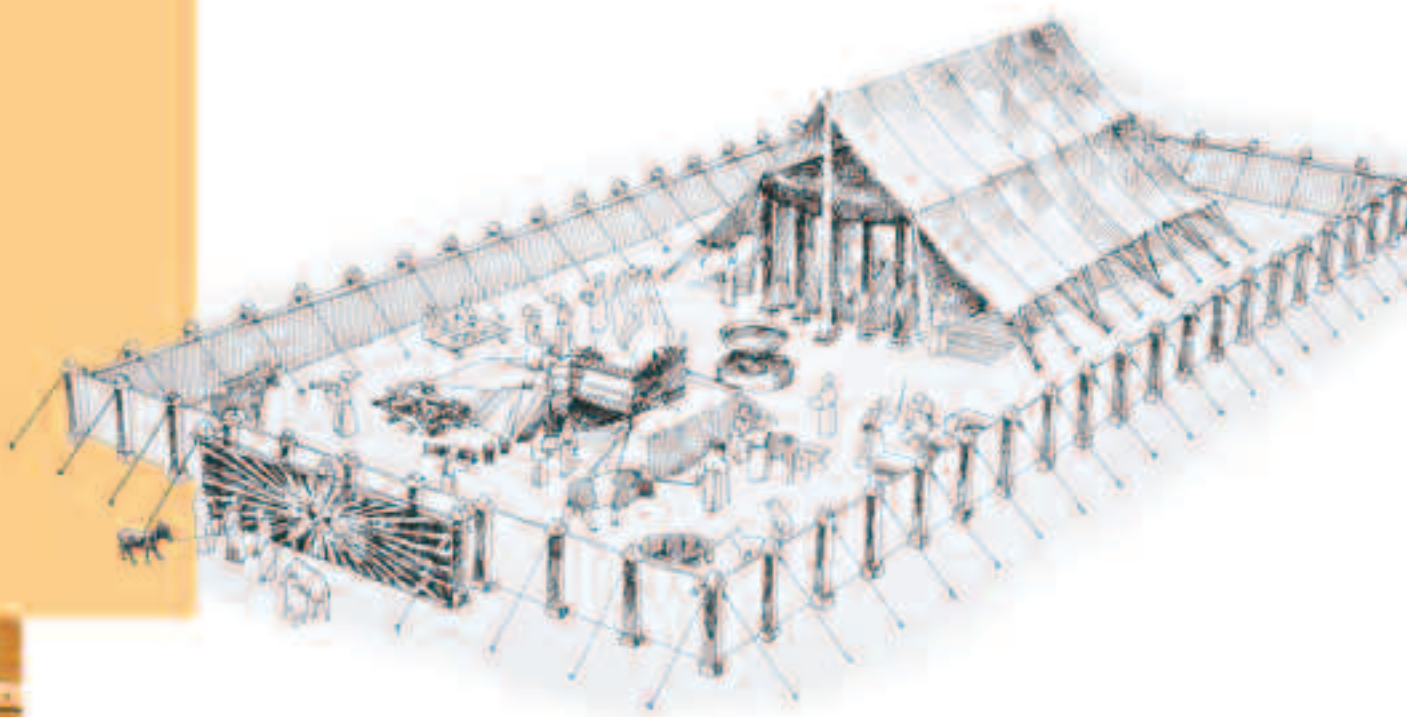
성전의 주된 목적은 바로 해의 왕국에서 승영하는 데 필요한 의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성전 의식을 받으면서 우리는 구주께 인도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전해 주는 축복을 받습니다. 성전은 지금까지 인류가 아는 장소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배움의 전당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세상의 창조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엔다우먼트 의식을 받으며 우리는 이 필멸의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배웁니다. 엔다우먼트라는 단어는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이 의식을 받을 때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배우고 구주를 따라 의롭게 살겠다는 성약을 맺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의식은 해의 왕국에서 영원토록 하나가 되게 하는 인봉 의식입니다. 결혼 성약을 통해 자녀가 부모에게 인봉되고, 성약 안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은 영원한 가족에 속하게 됩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인봉하면 하늘에서도 인봉될 것이요, 네가 나의 이름과 나의 말로써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영원히 매이리라."(교리와 성약 132:46)

부부가 제단에 무릎을 꿇은 모습을 보면 인봉자인 제가 주님을 대표한다는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는 사실을 실감합니다. 지상에서 인봉되는 것은 말 그대로 하늘에서도 인봉되며, 인봉되는 부부가 충실하게 끝까지 견디면 절대 그 인봉이 깨지지 않는다는 진리를 저는 압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성전에서 맺은 성약에



삽화: 댑드 해닝거

충실하게 생활하여 견실하고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며 결혼 생활을 영위하는 부부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해 나가는 부부에게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즉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살아야겠다는 영원한 목표를 세웁니다. 이에 따라 육에 속한 사람의 삶의 방식을 뒤로 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모사이야서 3:19 참조)

둘째, 성전의 구원 의식과 성전 성약에 대한 교리, 그리고 그 중요성을 알고 이것이 영원한 목표를 성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압니다.

셋째, 순간뿐인 세상적 소유물보다 하나님 왕국의 영원한 축복을 얻으려고 노력합니다.

넷째, 현세와 영원을 위해 인봉되었을 때 선택한 배우자가 자신의 영원한 동반자이며, 따라서 다른 사람을 찾는 구애 기간이 이제는 끝났다는 사실을 압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섯째, 이 부부들은 자신보다 배우자를 먼저 생각합니다. 이기적으로 굴면 영적으로 무감각해집니다. 부부는 주님과 기도로 대화하면서 함께 성장하지, 각자 따로 성장하지는 못합니다.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니 작은 일이 큰 골치덩이가 되도록 내버려 두는 일도 없습니다. "자신이 받은 작은 상처"에 대해서도 빨리 대화를 나누며, 괜히 이야기를 꺼내 화나게 한 건 아닌지 하고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주전자 물이 끓어오르면 압력이 증가하지만 이내 증기가 피익 하고 빠져나가는 것처럼 곪은 감정이 폭발할 일도 없습니다. 압력밥솥이 터지기 전에 약간씩 증기를 빼내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부들은 사랑하는 배우자의 감정을 상하게 하면 기꺼이 사과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서로 사랑을 표현하며 더 가까워집니다. 서로를 고양하고 힘을 북돋아 줍니다.

성전 축복

성전은 성스러운 건물이자 거룩한 장소입니다.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승영을 위해 필수적인 구원 의식을 집행합니다. 거룩한 집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하고 의식과 성약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이 필멸의 삶에서 겪는 가장 중요한 경험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선택의지를 행사하며 필멸의 시험을 치르기 위해 자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을 떠나 이곳에 왔습니다.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이 있으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니파이후서 2:11)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악한 자의 …… 불화살"을 신앙의 방패와 영의 검으로 대항하고(교리와 성약 27:15~18 참조) 끝까지 견디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 서기에, 그리고 그분들과 함께 살기에 합당해지겠다는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

2005년 11월 15일에 있었던 브리검 영 대학교 영적 말씀에서 발췌. 전문은 http://speeches.byu.edu에서 영어로 볼 수 있다.

주

1. *History of the Church*, 4:603.

브라질 레시페 성전에서 매일 봉사하는 마리아 호세 데 아라우죠 자매는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일에서 위대한 모범"을 보여준다고 클레토 피올리베리아(마리아 자매 오른쪽) 성전 사무장은 말했다.

봉사는 나의 특권입니다

마이클 알 모리스
교회 잡지

브라질 레시페 성전이 문을 열어 구원의식이 집행되기도 전에, 마리아 호세 데 아라우효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오늘도 다른 이를 위해 봉사를 하려 준비를 시작한다. 마리아는 올해 일흔 살이 되었다.

마리아가 성전에 가려면 브라질 동북 해안 레시페 남단 카보 데 산토 아고스티노에 있는 집에서 한 시간 반 동안 버스를 타고 가야 하는데, 이때 세 번이나 버스를 갈아탄다. 집을 떠나기 전에 마리아는 집에서 돌보고 있는, 앞 못 보는 사촌에게 음식과 기타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 준다.

"마리아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에서 위대한 모범이 됩니다." 성전 사무장인 클레토 피올리베리아의 말이다. "성전이 2000년 12월에 헌납된 이래로 봉사자로 헌신하면서 성전이 열리는 날이면 하루도 빠지지 않고 봉사를 하십니다. 공휴일에도 성전에 오시죠."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7시부터 오후 3시까지 마리아는 성전 구내 식당에서 봉사하며 설거지를 하고 샐러드를 만든다. 더 오래 일하고 싶지만 집까지 버스로 먼 길을 달려야 해서 어두워지기 전에 도착하려면 일찍 떠날 수밖에 없다.

올리베리아 형제는 마리아 자매에게 성전에 매일 올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마리아가 오지 않으면 대체 봉사자가 두 명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 "제 말에 마리아 자매님은 미소를 짓더니 '주님께 제 삶을 바쳤습니다.' 하고 대답하시더군요."

마리아 자매에게 성전 봉사는 위대한 특권이다.

마리아 호세 데 아라우효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성전을 방문하지 않으면 위대한 기회와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마리아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 건강을 축복해 주셨죠. 그래서 저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끊이지 않고 성전에 오겠다고 목표를 세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제 재능과 능력을 마음껏 바치기로 성약을 맺었습니다. 성전에서 봉사하고 집에 돌아와서도 피곤하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전에 6년 동안 와드 가족 역사 센터에서 봉사하면서 가계도를 조사했다. 그러고는 토요일 아침이면 성전 구내 식당에서 봉사하기 전에 성전 대리 사업을 여러 차례 받았다. 마리아는 외가 쪽으로 4대, 그리고 친가 쪽으로도 4대까지 대리 의식을 모두 받았다.

가족 역사 연구를 시작하면서는 마리아는 과연 이 일이 가능한가 하고 생각했다고 한다. 특히 증조부와 증조모의 성함을 알아낼 수 없을 때 더욱 그랬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꿈속에서 두 분의 성함을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그 이름이 정말 정확한지 의문도 품었지만 외가 쪽 기록을 조사하다 그 이름을 찾았고, 전에는 발견하지 못한 연관 관계도 알아냈다. 마리아 자매는 주님을 섬기고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봉사하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그러한 꿈을 꾸는 축복을 받았다고 믿는다.

마리아는 이렇게 말한다. "성전은 곧 제 삶이죠. 성전을 방문하지 않으면 위대한 기회와 축복을 놓치는 거예요. 성전에서 봉사하면 이곳의 진정한 의미와 힘을 이해할 수 있어요." ■

사진 촬영: 마이클 알 모리스, 다른 사진 제공: 브라질 레시페 성전 사진 촬영: 알 밴 존슨

성전을 찾는 사람들

라이언 카
교회 잡지

가족 역사 사업과 우정증진,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통해 성인 회원들은 성전 엔다우먼트를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힘을 얻는다.

게리 터커와 제니퍼 부부는 영원한 가족이 되기를 꿈꾸었다. 하지만 제니퍼는 그 소망을 거의 잃을 뻔 했다. 꿈을 이루려면 성전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했는데, 게리 터커 형제는 성전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터커 부부의 감독은 한 가지 영감을 받았다. 그것은 터커 부부뿐 아니라 보제만 몬태나 스테이크 스리 폭스 와드의 모든 회원들이 영원한 가족이라는 꿈을 이루는 데 도움이 될 듯했다. 몇 년 전에 아론 바주크 감독은 스테이크에서 감독과 신회원을 대상으로 열린 모임에 참석한 적이 있다. 모임 감리자인 지역 칠십인은 한 신회원에게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받기 위해 성전에 가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고 질문했다. 그 신회원은 그렇다고 대답했다.

바주크 감독은 엔다우먼트를 받지 않은 회원을 성전에 데리고 가는 일을 전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 다음 주에 바주크 감독은 빌링스 몬태나 성전과 약속을 잡은 후, 성인 회원들이 가서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집행하게 했다. 그날 성전 방문은 성공을 거두었다. 다음 몇 달 동안 와드의 장로와 대제사들은 엔다우먼트를 받지 않은 더 많은 성인 회원을 데리고 성전을 찾았다. 바주크 감독은 이렇게 말했다. "회원들은 강한 영을 느꼈습니다. 엔다우먼트를 받아야겠다는 소망과 결심이 마음 속에서 하나로 어우러졌죠."

준비

곧 준비가 시작되었다. 성인 회원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합당해지기 위해 감독과 함께 일했다. 성전 준비반 수업도 들었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집행하고 나서 수업에 대한 관심도는 그야말로 절정에 이르렀다. 수업을 들으면서 회원들은 성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로 성전에서 주님의 영을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바주크 감독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아직 준비되지 않아서 더 높은 성약을 맺지는 못하더라도 의식에 참여하여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회원을 성전에 데리고 가는 일은 정말 중요합니다. 성전 준비 책자에는 '성전에 오십시오' 라는 내용이 있는데, 이에 부합하는 일이죠."[1]

스리 폭스 와드의 장로 정원회 회장인 데이비드 보이드는 성전에 가서 침례를 베풀다 보면 목표가 더 뚜렷해진다고 말한다. "참석한 회원들은 자신도 엔다우먼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대리 침례에 참여한 많은 분들은 그때까지도 성전 대지에 발을 디뎌 본 적이 없었어요. 성인을

사진 제공: 터커 가족

빌링스 몬태나 성전에서 인봉을 받던 날 게리 터커 형제와 제니퍼 자매, 두 자녀 코디와 가렛의 행복한 모습.

위한 침례 여행은 그런 분들이 성전에 첫 발을 내딛는 기회가 됩니다."

최근에 다시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러 회원들은 엔다우먼트를 받기 전에 대리 침례를 먼저 받았다. "절대로 합당성과 관련된 문제는 아닙니다." 바주크 감독은 이렇게 덧붙였다. "준비와 관련된 문제죠. 침례를 수행하기에는 합당하고 준비되어 있지만 엔다우먼트에 수반된 성약을 맺기에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형제들은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멜기세덱 신권을 받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가족 역사 사업도 성전 사업에 큰 힘을 보탠다. 래리와 캐롤린 이솜과 같은 와드 회원들은 와드 역사 센터에서 봉사하며 가족철 수백 명 분을 제공했다. 성전 준비반, 가족 역사, 성전 예배, 이 세 가지 활동이 함께 어우러져 상승 작용을 일으킨다. 가족 역사 사업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 가는 사람들이 대신 의식을 받아줄 이름들을 열심히 마련한다. 성전에 가는 회원들은 기쁜 마음으로 자신과 와드 회원들의 조상을 대신하여 성전 사업을 한다. 그리고 성전에 머물며 이곳에 다시 오기 위해 준비해야겠다는 큰 힘을 받는다.

지난 몇 해 동안 스리 폭스 와드 회원 스물두 명이 성전 준비반 수업을 들었고, 그 중 열네 명이 대리 침례를 받기 위해 정기적으로 성전에 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수업을 마친 후에 그 중 열세 명이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엔다우먼트를 받은 회원 중 일부는 독신이거나 배우자를 잃은 자매이다. 게리 터커와 제니퍼와 같이 가족 인봉을 받은 회원들도 있다.

우정증진

게리 터커는 1992년에 교회 회원이 되었다. 제니퍼와 결혼하기 두 달 전에 일어난 일이었다. 하지만 일에 바빠 시간내기가 어려웠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니, 아내의 도움이 있기는 했지만 교회에서 활동 회원으로 남는 것이 어려웠다. 터커는 당시 '담배를 씹고 욕을 하는 데' 시간을 허비했다고 회상한다."

딸인 코디가 태어나자 제니퍼는 교회에 함께 참석하여 딸 아이를 복음 안에서 키우려고 노력했다. 남편인 터커 형제가 집에 교회 자료가 있는 걸 싫어하는 상황이었는데도 말이다. 터커 형제는 가족이 교회에 가도록 독려하기는 했지만, 자신은 참석하지 않았다. 딸 코디가 여덟 살이 되자 선교사가 코디에게 침례를 주었다. 아버지 대신 말이다. 터커 형제는 그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참석할 수 있어서 정말 기뻤죠. 하지만 침례 의식에 참여하지 못하고 가만히 지켜만 보자니 엄청나게 후회가 되더군요."

다음 몇 해 동안 여러 회원들이 터커 형제와 친분을 나누었고, 터커 형제는 교회로 돌아왔다. 제니퍼는 와드 회원이나 선교사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런 자리에서 남편이 다른 이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리라는 걸 알았다. 터커 형제는 당시에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회원들과 선교사들에게 고마워한다.

터커 형제가 고마워하는 친구들 중 한 명은 제니퍼의 어머니에게 가정 복음을 하다 터커와 제니퍼를 알게 된 데일 프라이스 형제다. 프라이스 형제가 터커 형제를 방문하여 처음으로 대화를 나눌 때에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저 두 형제 모두가 관심 있어 하던 사냥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프라이스 형제 부부는 또한 와드 활동에서 터커 형제 부부 옆에 앉아서 함께 했다. 터커 형제가 실직했을 때는 비축해 두었던 음식을 가져다 주었고, 꿀벌을 키워 직접 만든 꿀을 주기도 했다. 터커 형제는 토스트를 먹을 때 꿀을 발라 먹는 걸 가장 좋아했다. 프라이스 형제는 작은 선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으로 두 형제 "사이는 돈독해졌다."

작고 단순한 일하기

스테이크 회장이 전한 권고는 터커 형제 가족에게 도움이 되었다. 데이비드 히프 회장은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작고 단순한 일 일곱 가지"를 하도록 권유했다. (1) 개인적으로 매일

스리 폭스 와드의 회원들은 정기적으로 빌링스 몬태나 성전에 가서 봉사하기 위해 두 시간 반 동안 운전을 하며 성전을 찾아간다. 성전에 참석하는 회원 중 몇몇은 엔다우먼트와 인봉을 받으려고 준비하면서 대리 침례에 참여하고자 하는 부부들이다.

왼쪽: 빌링스 몬태나 성전 사진, 스티브 번더슨; 빌링스 몬태나 성전 침례탕 사진, 노만 차일즈;
오른쪽: 사진촬영: 드레이크 부사스 © Busath Photography

경전 읽기. (2) 적어도 일주일에 5일은 가족과 함께 경전 읽기. (3) 매일 아침과 밤에 개인적으로 기도하기. (4) 매일 아침과 밤에 가족 기도 하기. (5) 가족과 함께 매주 일요일 교회 모임에 참석하기. (6) 월요일 저녁에 가정의 밤 하기. (7) 매달 성전에 참석하기.

터커 형제는 이 권고에 따르면 가족이 더 가까워지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점을 알았다. 그건 터커 형제의 소망이기도 했다. 그래서 가족과 함께 기도를 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가정의 밤을 했다. 이러한 노력은 결실을 맺었다. 터커 형제는 감독의 권유를 받아들였고, 성전에 가기 위해 준비했다.

2006년 1월에 터커 가족은 감독의 집에서 열린 노변의 모임에 참석했다. 바주크 감독은 터커 형제를 따로 불러내서 성전에 대해 이야기했다. 터커 형제는 감독에게 씹는 담배를 통째로 주었다. 담배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기 위한 조치였다. 그때, 그리고 그 후에 감독과 접견을 하면서 터커 형제는 많은 질문을 했다. 감독은 터커 형제가 침례 받을 때 맺은 성약에 따라 살면서 영을 동반하기에 합당해지라고 강조했다.

터커 부부는 성전 준비반 수업을 듣기 시작했고, 아내인 제니퍼는 와드 회원들과 함께 성전에 가서 매달 대리 침례 의식에 참여했다. 터커 형제도 합당해지기 위해 노력했다. 당시 열한 살이었던 코디는 좀 있으면 성전에 가서 대리 침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마음이 들떠 있었다. 코디가 열두 살이 되자 터커 형제는 딸과 함께 성전에 갈 수 있었다. 이 부녀는 그때 처음으로 성전에 발을 디뎠다.

코디는 이렇게 회상한다. "정말 멋졌어요. 그곳은 아주 평온했죠. 아빠도 함께 가셨기에 정말로 더 중요한 일이었죠." 터커 형제는 당시를 이와 같이 회상한다. "첫 방문은 정말로 믿기지 않을 만큼 평화롭고 기뻤습니다."

다음 주 일요일, 성전 준비반에 참석한 터커 형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몇 해 동안 성전 준비반을 가르쳤던 엘나 스코필드 자매는 그때 "계속 빛을 느꼈다."라고 회상한다. 터커 형제는 수업이 끝난 후에도 남아서 계속 질문을 했다. 성전에서 영을 느꼈고 다시 성전에 가고 싶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리 침례 의식이 아니라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고 가족 인봉을 받고 싶었다.

다음 달에 터커 가족은 감독과 다른 와드 회원과 함께 다시 성전에 참석했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정기적으로 성전에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2세 이상인 여러분의 자녀가 성전에 가서 대리 침례 의식에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성전을 방문하면 우리는 더 훌륭한 사람, 더 훌륭한 아버지, 남편, 더 훌륭한 아내, 어머니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쁘다는 점을 잘 압니다. 할 일도 많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집에 간다면 축복을 받고 여러분의 삶이 더 나아지리라는 사실을 약속합니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 "Excerpts from Recent Addresses of President Gordon B. Hinckley," *Ensign*, 1997년 7월호, 73쪽

시련을 이겨내고

터커 형제 부부가 엔다우먼트를 받고 인봉되기 몇 주 전이었다. 여전히 사탄은 방해를 하고 있었다. 터커 형제는 발전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마음속에서는 자신이 과연 성전에 가기에 합당한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 영원한 가족이라는 꿈을 이루는 일이 코 앞에 놓여 있는 듯했지만 실상 자신에게는 그 꿈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에 있는 듯 했다. 터커 부부는 더 많이 기도하면서 힘을 구해야 한다는 점을 알았다. 제니퍼 자매는 다음과 같이 회상한다.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평안과 함께 모든 일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확신이 찾아왔습니다. 성전 안으로 발을 디디는 순간까지 우리를 평온하게 해 주는 그분의 영이 가족과 함께 했습니다."

터커 형제와 제니퍼 자매는 엔다우먼트를 받았다. 그리고 두 자녀인 코디와 가렛과 함께 흰 옷을 입고 인봉실에서 무릎을 꿇었다. 여섯 살 난 가렛은 엄마가 우는 모습을 보자 손을 뻗어 엄마의 뺨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 주었다. 터커 형제와 딸 코디도 함께 기쁨에 겨워 눈물을 흘렸다. 인봉자도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터커 부부는 전보다 가족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대화도 잘 하게 되었다고 한다. 터커 형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더 행복해졌어요. 아내와 더 가까워졌고 아이들은 그런 저희를 보며 자라고 있죠." 터커 형제는 회원이 아닌 가족들 앞에서 자신이 모범을 보였다고 느낀다. 그리고 와드에 있는 다른 가족들이 주님께서 성전을 통해 자신의 가족에게 주신 축복을 똑같이 받았으면 하고 소망한다. ■

주

1.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 준비함*(소책자, 2002년), 1쪽

새로 출간된 *복음 그림책*

나선형 스프링, 저렴한 가격, 137개의 그림과 사진, 후기 성도들이 복음을 배우고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그림책이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마이클 지 매드슨
교회 교과과정부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사무실에는 화가 하인리히 호프만이 그린 구주의 그림이 걸려 있다. 선지자는 이렇게 말한다. "이 그림을 보면 구주께서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림들은 호프만의 그림이 몬슨

회장에게 큰 영향을 미쳤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교회 공과반과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저렴한 그림책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교회는 그림과 사진 137개가 실린 *복음 그림책*을 선보였다. 이 그림책으로 복음 교리는 물론 초등회 함께 나누기 시간에 가르치는 공과 내용을 보충할 수 있다. 또한 가정의 밤, 개인 경전 공부, 선교 사업, 가정 복음 교육과 가정 방문 교육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림책에 있는 그림과 사진을 활용하여 무언가를 가르치는 계기로도 삼을 수 있는데, 경전 이야기를 들려주거나 원리를 가르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독자에게 도움이 되도록 *복음 그림책*에는 그림과 함께 관련 내용이 나오는 경전 구절이 실려 있다. 이렇게 경전을 연구하다 보면 그림 및 사진에 묘사된 사건과 해당되는 복음 원리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공과를 가르칠 때 다음과 같이 *복음 그림책*을 활용할 수 있다.

1 반원에게 해당 그림과 관련된 경전 구절을 찾아보도록 권유한다. 그림에 대해 함께 토론하면서 경전 구절을 큰 소리로 읽거나 요약해 보게 한다.

2 그림을 반원에게 직접 묘사해 보라고 한다. 어떤 복음 원리를 배울 수 있는가? 지금 우리 삶에 그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

3 특정 복음 원리를 가르친 후에 그 원리를 표현한 그림을 *복음 그림책*에서 찾아보게 한다. 그 의미를 토론하여 이해하고 나서 그림을 다시 볼 때 어떤 느낌이 드는지 물어본다.

언제나 복음을 배우고 가르칠 때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영감을 구해야 한다.(교리와 성약 42:14~17 참조) 그렇게 하면 성신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알려 주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알게 된다. 새로 출간된 *복음 그림책*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고 영생의 축복을 받는 데 필요한 도움을 서로 나누게 하는 중요한 도구이다. ■

왼쪽에서부터: 그리스도의 이미지, 하인리히 호프만, C. Harrison Conroy Co 제공; 사진 촬영: 매튜 레이어, 이현규, 크리스티나 스미스

시각 자료의 힘

"반원이 더 잘 이해하고 배울 수 있게 하고 싶다면 교사는 시각 자료를 함께 사용한다. 그림이나 지도, 낱말 카드, 그 밖의 시각 자료를 사용하여 개념을 가르치면 단순히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잘 배우고 더 오래 기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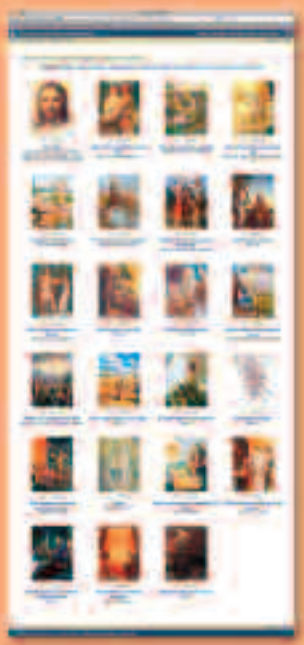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년), 167~168쪽

복음 그림책을 구하는 방법

1. www.gospelart.lds.org에서 온라인 판 그림책을 이용할 수 있다.

2. 배부 센터에서 복음 그림책(물품 번호 06048 090)을 구할 수 있다.

3.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는 웹사이트 www.ldscatalog.com에서 주문하거나 1-800-537-5971로 전화 주문할 수 있다.



덕
중요한 표준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
(교리와 성약 121:45)

사진 촬영: 조 루크

자라나는 세대를 양육하십시오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성구와 인용문, 또는 다른 원리를 가르친다. 교리에 대해 간증한다.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에게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 함께 나누어 달라고 권유한다.

교리와 성약 123:11: "이는 자라나는 세대 모두에게 …… 우리가 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의무이니"

자라나는 세대에 대해 나는 어떤 책임을 지는가?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주님께서 이 시기를 위해 준비하신 자라나는 세대는 인류 역사에서 이 특별한 시기를 위해 보존되고 준비되어 왔습니다! 이 시기에 세상에 나오도록 보존된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주어진 과업을 수행하도록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청소년들은 잠재적인 개종자와 같습니다. 이 영혼들이 주님께 향하거나 그분으로부터 멀어지는 중대한 순간이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이 언제나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순간이 다가오면 절대 그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순간은 주로 청소년들이 부모나 조부모, 감독이나 성인 지도자, 또는 의로운 친구와 함께 조용하고 경건하게 대화를 나눌 때 찾아옵니다."("Unto the Rising Generation," *Ensign*, 1985년 4월호, 8, 10쪽)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칠십인 회장단: "자라나는 세대들이 성인이 되는 여정에서 그들을 지원하고 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가치가 있습니다. …… 지금은 우리가 취하는 모든 행동과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서 만나는 모든 후기 성도 젊은이들과 함께 그들의 삶에서 그들을 강화시키고 양육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한다는 필요성을 크게 자각해야 할 때입니다."("우리의 자라나는 세대",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칠십인 회장단: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46, 47쪽)

사진 삽화 및 배경 크레이그 다이머드

자라나는 세대를 어떻게 양육할 수 있을까요?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 "이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딸이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들을 돌봐 주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부모이기 전부터 부모이셨으며, 그분은 부모로서 단 한번도 자신이 맡은 권리를 포기하거나 자녀에 대한 관심을 버리신 적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 사랑과 주님의 보살핌과 훈계로 자녀를 양육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린 자들을 돌보십시오. 집에서 따뜻하게 반겨 주고, 진실된 마음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보여 주십시오. 우리의 아들 딸들은 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인내하십시오. 참으십시오. 계속 노력하면 실패하지 않습니다."("Words of the Living Prophet," *리아호나*, 1998년 5월호, 26~27쪽)

줄리 비 벡, 상호부조회 회장: "양육은 기르고 돌보며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 양육할 때 필요한 것은 조직, 인내, 사랑, 그리고 노력입니다. [자녀를] 양육하며 성장하도록 돕는 일은 참으로 여성이 받은 가장 강력하고도 영향력 있는 역할입니다."("복음의 진리를 아는 어머니들",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76, 77쪽)

바바라 톰슨, 상호부조회 회장단 제2보좌: "상호부조회 자매로서 우리는 서로를 도우며 가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직책에서 봉사할 기회가 있습니다. 우리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참으로 필요한 아이들과 청소년을 끊임없이 접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은 자매님들은 젊은 엄마에게 나누어 줄 훌륭한 조언과 경험이 많습니다. 때로 청녀 지도자나 초등회 교사는 부모가 가르치려고 애쓰는 내용을 보강하는 데 필요한 것을 말해 주고 행하기도 합니다. 친구나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특정한 부름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117쪽) ■

보살핌의 축복

교회 회원들은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구주의 모범을 따르면서 많은 이의 삶을 축복하고 간증을 강화한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이 보여 주신 보살핌의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 사이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60년이 넘도록 그분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손을 내밀어 위로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병들고 고통 받는 이들을 돌보셨습니다.[1]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쁨으로 환하게 밝힐 마음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구원할 소중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병든 자, 지친 자, 굶주린 자, 추위에 떠는 자, 상처 입은 자, 외로운 자, 노인과 방황하는 자, 이 모든 이가 도와 달라고 호소합니다."[2]

몬슨 회장님은 사람들을 보살피면서 *베푸는 일*과 *보살피는 일*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프로그램과 의식을 *베풀지*만 *보살피는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랑과 도움을 주며 행하게 됩니다. 몬슨 회장님은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신]"(마가복음 10:45) 구주를 따르셨습니다.

다음 네 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후기 성도들은 "가서 …… 이와 같이

삽화 - 그레그 트웹슨

하[여]"(누가복음 10:37) 다른 사람과 교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축복합니다.

팬케이크 반죽을 든 사마리아인

내가 받은 수술은 간단한 것이었지만 생각처럼 쉽게 회복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인 나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지 절대로 도움을 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수술 후 3일이 지난 월요일 아침, 일곱 아이를 깨워 학교에 보낼 준비를 해야 했다. 큰딸에게는 집에 남아서 아기를 돌보라고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었다.

머릿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초인종이 울렸다. 나의 1보좌이자 친한 친구인 비키 우다드가 도와 주겠다고 찾아온 것이다. 두 팔로 반죽 그릇을 안고는 팬케이크를 만들어 주러 왔다며 프라이팬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다. 아이들은 신이 났다.

아침식사를 마친 후에 비키는 아이들을 학교로 보내고 청소를 했다. 그리고는 아기를 집으로 데려가서 낮잠을 자는 정오까지 돌보아주었다. 나중에 들었지만, 비키의 어린 아이들은 비키의 남편이 직장에서 몇 시간 짬을 내어 돌보았다고 한다.

그날 비키와 비키의 남편이 나를 보살펴 준 덕분에 기운을 얻어 회복할 수 있었다.

비벌리 애쉬크로프트, 미국 애리조나 주

지극히 작은 자에게

어느 날 나는 막내 아들과 함께 단 둘이 집에 있다가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졌다. 그 뒤로 며칠 동안 복통이 가시지 않아 병원에 갔다.

당시에 나는 임신 중이었는데, 검사 결과를 보니 태반이 분리되었다고 했다.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하는 상태였다. 그렇지 않으면 해산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어린 아이가 세 명이나 있는데다가 돈을 주고 사람을 부를 형편도 아닌 터라 걱정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 지부의 자매들이 내 상태를 알고는 도와주겠다며 찾아왔다. 부탁도 하지 않았는데 말이다. 자매들은 세 무리로 나뉘어서 오전, 오후, 저녁에 와서 나를 돌봐주었다.

빨래, 다리미질, 요리, 청소와 더불어 아이들 숙제도 도와주었다. 내가 침대에서 꼼짝도 못하고 있는 동안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된 루트 자매는 우리 집에서 인기인이 되었다. 간호사인 루트는 밤에도

함께하며 주사도 놔 주었다.

자매들이 필요한 것들을 미리 생각해서 모든 걸 처리해 주었기 때문에 부탁할 일이 따로 없었다. 할 일이 그다지 많지 않으면 자매 한 명이 곁에 앉아서 말동무가 되어 주었다. 이렇게 돌봐주는 일이 3개월 동안 지속되었다.

자매들은 내게 사랑과 힘을 주며 헌신했다. 시간과 재능을 쏟으며 도움을 주려고 희생을 감수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면서 말이다. 주님의 모범을 따라 사랑하고 봉사했을 뿐이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시지 않았던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마태복음 25:40)

에닐제 도 로시오 페레이라 다 실바, 브라질 파라나

옷만 갖다 주세요

남편 브랜든이 사업 차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 가 있는 동안에 있었던 일이다. 브랜든은 어느 날 밤 고열과 호흡 곤란으로 잠이 깼다. 얼른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갔고 폐렴 중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때 우리 아들들은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한 어린 아기였기 때문에 당시 우리가 살던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플로리다 주까지 곧장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나는 남편이 조금이라도 몸이 좋아져서 얼른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매일 전화를 걸었다.

그러나 남편의 상태는 더욱더 악화되었다. 간호사는 나에게 속히 병원으로 오라고 재촉했다. 나는 우리 아이들을 누가 돌봐줄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았다.

어머니가 직장 일을 잠시 쉬고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오시겠다고 하셨지만, 어머니가 도착하실 때쯤이면 비행기가 이미 이륙해 있을 시간이었다. 나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도착하실 때까지 아이들을 봐 줄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상호부조회 친구인 재키 올즈가 기꺼이 아이들을 봐 주겠다고 했다.

재키가 말했다. "아기들 옷하고 기저귀만 갖다 줘. 며칠이 되든 너 없는 동안 잘 보살펴 줄게."

재키는 아이 셋을 키우는 엄마인지라 생활이 늘 바빴다. 나는 재키의 제의를 거절하려 했지만 친구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아이들을 그 집에 내려주자 재키가 나를 위로해 주었다. "아이들 걱정은 하지 마. 남편이 호전돼서 집으로 올 수 있도록 남편만

신경 써. 전에도 어린 아기들을 봐 준 적이 있으니까 걱정마."

그 순간 나는 아이들이 우리 집에 있을 때처럼 안전하고 행복하게 지내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덕분에 나는 남편에게 갈 수 있었다. 내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브랜든은 여전히 심하게 앓고 있었지만 며칠 후에는 상태가 호전되어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내가 부탁한 것 이상으로 응해 주고 필요한 때에 도움을 준 좋은 친구에게 감사한다.

켈리 파크스, 미국 펜실베이니아 주

머리맡에서 한 봉사

앤더슨 형제는 혈기 왕성한 서른다섯 살의 와드 청남 회장이었다. 귀환 선교사인 그는 다섯 자녀를 둔 아버지였으며, 사업체를 경영하는 데다가 마음도 젊어서 누구나 좋아하는 청소년 지도자였다. 그러던 앤더슨 형제가 백혈병에 걸리고 말았다.

감독님에게서 이 소식을 들은 제사 정원회 1보조인 라이언 힐은 지체 없이 정원회의 모든 활동 회원과 저활동 회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앤더슨 형제를 보러 병원에 가려고 하는데, 모두 같이 가자. 올 수 있지?"

라이언은 모든 제사와 통화를 하면서 이 말을 되풀이했다.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한 제사가 말했다. "일을 해야 할지도 몰라."

"그럼 일 끝날 때까지 기다릴게." 라이언이 대답했다. "이건 다 같이 해야 하는 일이거든."

"좋아." 그 제사가 말했다. "다른 사람과 교대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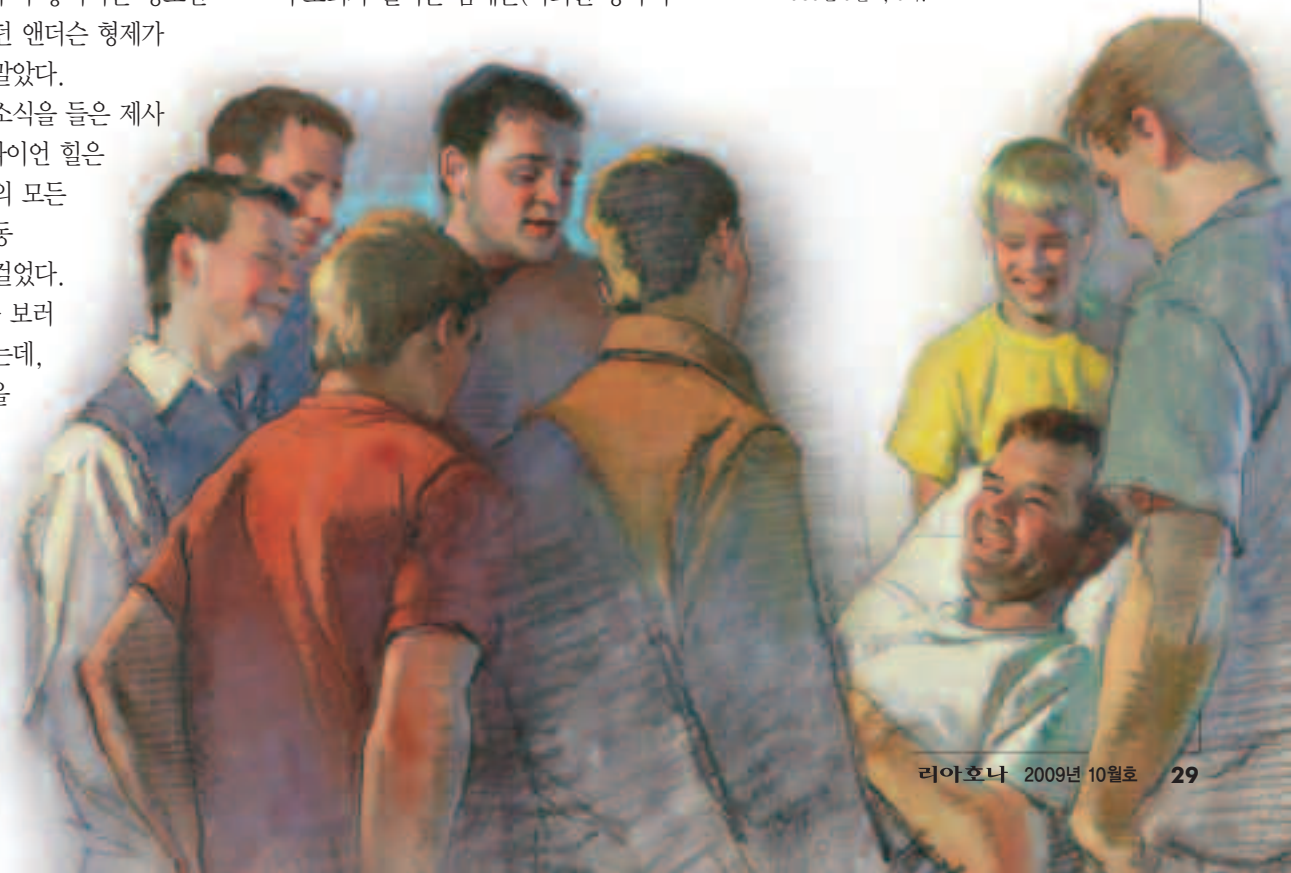
이렇게 제사 열한 명은 모두 함께 병원으로 갔다. 일요일 모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제사들과 저활동 제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은 함께 웃고, 울고, 기도하며 앞 일을 계획했다. 그 후 몇 달 동안 제사들은 앤더슨 형제가 순환 장애를 일으킬 때 발을 문질러 줄 시간을 정하고, 번갈아 가며 두 시간 걸리는 혈소판 헌혈을 하며 앤더슨 형제가 자신들의 혈액만 받을 수 있게 했다. 무도회가 열리는 밤에는(비회원 청녀 두 명을 포함하여) 데이트 상대자와 함께 32킬로미터를 운전해 병원으로 갔고 앤더슨 형제에게 고등 학교에서 있던 일들을 들려주었다.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앤더슨 형제는 제사들에게 선교사로 봉사하고, 성전에서 결혼하고, 서로 계속 연락하며 지내라고 부탁했다. 그로부터 12년 이상이 지난 지금, 열한 명의 제사들은 선교 사업을 마치고 성전 결혼을 해서 가족을 이루었다. 그들은 사랑하는 지도자를 위해 함께 봉사했던 그 일을 여전히 추억 속에 간직하고 있다. 그 경험은 열한 명의 제사들의 인생에서 영적인 분기점이 되었다. ■

노먼 힐, 미국 텍사스 주

주

1. 쿠엔틴 엘 쿡, "선지자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리아호나*, 2008년 5월호, 49~50쪽 참조.
2. 토마스 에스 몬슨, "Your Jericho Road", *Tambuli*, 1989년 9월호, 6쪽.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다니엘 엘 존슨 장로
칠십인 정원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평신도 목자가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 교회의 와드, 지부, 스테이크, 지방부에는 급여를 받는 성직자가 없으며 대신 회원들이 직접 서로를 보살핍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모든 회원은 이스라엘의 목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감독단과 지부 회장단, 신권 및 보조 조직 지도자, 서기,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사를 비롯한 각 분야의 교사로 그리고 그 밖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야에서 봉사합니다.

평신도 목자들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각자 양육하고 격려하고, 봉사해야 할 양들이 있습니다. 모든 목자는 주님께서 지명하신 종을 통해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목자로서 자신의 청지기 직분을 주님 앞에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조셉 서지 메릴러스는 일을 찾기 위해 1980년에 열아홉 살의 나이로 조국 아이티를 떠나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이주했습니다. 18개월 후에 아이티로 돌아온 조셉은 사랑에 빠졌고, 신부 마리 레이몬데 에스테를린을 데리고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로 정착한 나라에서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조셉은 영적인 굶주림을 느꼈습니다. 조셉과 마리는 영적인 굶주림을 채우려고 몇몇 교회를 찾아갔지만 아이티 프랑스 말을 사용하며 살았던 두 사람은 스페인어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후기 성도 선교사를 만나 교회에 초대받았습니다. 조셉과 마리가 모임에 몇 번 참석하자 선교사들은 스페인어로 차근차근 토론을 가르쳤습니다. 조셉과 마리는 1997년 9월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조셉은 주일학교 회장단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부 회장단 보좌로, 이후에는 지부 회장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의사소통에서 오해가 종종 생겨났고, 감정이 상한 조셉과 마리와 다섯 자녀는 저활동이 되었습니다. 점차 이 가족은 교회 회원들에게서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7년 동안 부부는 자녀를 네 명 더 낳았으며, 아이티에 있는 조카와 조카딸을 집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조셉은 엄청난 노력을 들인 끝에 스페인어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었으며 지역에 있던 한 회사에서 영어와 아이티 프랑스 말을 가르쳤습니다.

2007년 8월, 주님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나서는 과정에서 두 신권 지도자는 이 가족이 사는 집 앞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조셉과 마리가 7년 동안 모임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복음에 대한 간증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 지도자는 이 가족에게 교회로 돌아오도록 권유했습니다. 그러자 조셉과 마리는 바로 그 다음날 그렇게 했습니다. 열세 명 모두 말입니다. 그때 이후로 조셉과 마리의 가족은 계속 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셉은 도미니카 공화국 남서부에 위치한 바라호나에서 지부 선교 책임자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첫째와 둘째 아들은 지부에서 지도자 직분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장로로 갓 성임된 조카는 청남 회장입니다. 최근에 이 가족은 성전에 가서 영원한 가족으로 인봉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 명의 목자가 기꺼이 이 가족을 찾고, 양육하고, 주님의 우리로 다시 데려오려 했기 때문에 잃은 양 열세 명을 찾아낸 것입니다. 두 목자는 그 가정으로 인도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책임진 잃은 양들을 찾아 나설 때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저는 올바른 길로 이끄는 목자의 방문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직접 그 방문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서 위대한 영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길 잃은 양이 울타리 안으로 돌아와서 환영 받고 기쁨을 누리는 모습을 수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마음에 감동을 받고, 축복을 말하고, 눈물을 흘리고, 간증을 하고, 기도하고 응답을 받으며 사랑을 표현하는 모습을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확대 편집, 조셉 브릭키; 오른쪽, 가인과 아벨, 로버트 티 배럿

저는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끄는 목자의 방문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그들에게서 기적과 같은 영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보았습니다.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양떼를 먹임

주전 592년에서 570년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태만한 목자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들이 태만하여 양떼가 흩어졌습니다. 그러한 목자들에 관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 목자들이 양 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

"내 양 떼가 ……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 내 양 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에스겔 34:2, 4, 6, 10)

여러 면에서 우리 교회는 예배당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에 오는 이들에게 영적, 정서적 양분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만 예배당으로 오는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에게는 신성한 의무로 보살피고 도움을 주어야 할 양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사 부름을 받은 사람은 공과에 나오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참석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목자입니다. 교사는 그들을 찾아가서 얼굴을 익히고 친구가 되어주며 무엇이 필요한지 살피고 우리 안으로 다시 데려 올 책임이 있습니다.

돌아오는 길로 이끎

회원으로서 목자인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가르침을 잘 기억하고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15장에서 주님께서는 잃은 양, 잃은 은전, 그리고 탕자의 비유를 가르치셨습니다. 이

세 가지 비유는 "잃었다가" 다시 찾은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잃은 양의 비유에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백 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를 잃으면 아흔아홉 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아흔아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누가복음 15:4~7)

이 비유에서는 길에서 벗어난 양이 한 마리만 나오지만 와드 또는 지부에서 그런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에서 벗어난 양의 수와는 상관없이 이 비유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 비유에서는 되찾는 과정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 언급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목자로 일할 때 어떤 양은 단 한 번만 방문해도 돌아오지만 수년 간 끊임없이 친절하게 격려해야 하는 양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되찾는 과정에서 우리가 "찾아가[는]" 양들은 "[주님]의 [소중한] 양들"[1]임을 잊지 맙시다. 주님께서는 그 모든 양을 개별적으로 잘 아십니다. 완전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주님의 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며 해야 할 말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 어린 마음으로 겸손하게 손을 내밀면 많은 사람이 성신의 권능을 통해 긍정적으로 응할 것입니다.

목자로서 우리가 맡은 책임을 기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양들을 보살피는 청지기 직분에 대해 주님께 훌륭한 보고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주

1. "사랑해 목자의 마음", *찬송가*, 144장.

다시는 잃지 않음. 그래고 케이 올슨, 복사 금지; 사진 삽화: 로레니 포세토

양을 지킴

"우리는 이스라엘을 돌보는 목자입니다. 굶주린 양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으며, 그들은 생명의 떡을 먹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 어떤 것이든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이 우리가 맡은 의무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우리의 신권 의무에 충실함", *리아호나*, 2006년 11월호, 57~58쪽.

질의응답

“저는 형제 자매들과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막내입니다. 그래서 같이 활동을 하거나 대화를 나눌 때 항상 소외감을 느낍니다. 이런 관계를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런 어려움은 여러분이 형제와 자매들의 생활에 함께 하고 싶다는 뜻을 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들은 여러분이 소외감을 느낀다는 사실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부모님과 이야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좋은 방법을 아실 것입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몇 가지 제언하고, 같이 이야기할 주제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함께 시간을 보낼 방법을 계획할 때에는 그들의 일정과 관심사를 염두에 두십시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활동에 관심을 보이면 관계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형과 누나, 언니 오빠들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을 몇 년 안에 여러분도 똑같이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한다면 형제 자매들과 더 돈독한 관계를 만들 좋은 방법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영의 속삭임을 받게 되면 그에 따라 용기 있게 행동하십시오.

그들과 대화해 보십시오

저도 막내인데 나이차가 많이 나는 편이에요. 제가 형제들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것만큼 그들도 저에 대해 알고 싶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화로 이야기를 하거나 나가서 점심식사를 같이 하자고 말하면 아마 굉장히 좋아할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함께 나눌 만큼 편하게 대하는 건 그들에게도 무척 의미 있는 일일 것입니다. 영적인 주제에 관해서도 이야기하세요. 그들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도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켈시 에이치, 16세, 캐나다 앨버타

훌륭한 모범이 되십시오

저도 이런 어려운 상황을 겪었었죠. 제 생각에 가장 좋은 방법은 형제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과 그들 사이에 사랑과 평화가 깃들 수 있습니다.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 주며 가족이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그들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씩 좋아질 겁니다.

아담 비, 16세, 헝가리 교르 몬슨 소프론

대답들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며, 교회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학교와 여러 일상 활동 때문에 가끔은 언니 오빠들과 시간을 보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기회가 되면 그냥 가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어떻게 지냈는지 이야기하고, 언니 오빠들은 어떻게 지내는지 알아보십시오. 고민거리가 있다면 의견을 물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자신들의 의견을 소중하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느낄 것입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십시오. 함께 놀이를 하고 시간을 보내는 일은 정말 도움이 됩니다.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도 말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항상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캐서린 엠, 14세, 미국 아이다호 주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저는 막내라서 가끔씩 활동과 대화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가족과 함께 공통된 가치를 나누면서 서로를 강화하고 격려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친절하고 품위 있게 대하십시오. 형제 자매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 점을 알려 주십시오.

조셉 엠, 16세, 필리핀 레이테

모든 순간을 함께 즐기십시오

누나들은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자기들만의 일이 있기 때문에 이따금씩 저는 제 자신이 잊혀진 존재처럼 느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누나들이 모두 저를 사랑하며,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은 것이 아니라 다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순간을 즐기고, 웃고, 친절하고 다정하게 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사랑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여러분의 형제들과 친하게 지내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로베르토 에스, 18세, 칠레 산티아고

이야기할 시간을 내십시오

저는 칠 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어렸을 때는 소외감을 느꼈지만 생각하던 것 이상으로 형제들이 저를 사랑한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그들과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언니 오빠들과 함께 보낸 시간 중 가장 좋았던 것은 대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저를 많이 신뢰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언니 오빠들과 이야기하기 위해 저는 일을 돕고, 친절하게 대하며, 화내는 일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언니 오빠들이 저를 돕도록 저도 협동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런 노력 덕분에 소속감과 사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리아 에이치, 19세, 멕시코 멕시코시티

다음 호 질문

"'어느 때에나 ……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모사이야서 18:9)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의 의견을 2009년 11월 15일까지 아래 주소 또는 이메일로 보내 주십시오.

Liahona, Questions & Answers 11/09
50 E. North Temple St., Rm. 2420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이메일: liahona@ldschurch.org

명확하게 표현하거나 분량을 조절하기 위해 보내 주신 의견을 편집할 수도 있습니다.

이메일 혹은 우편에 다음 내용과 동의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

와드(혹은 지부)

스테이크(혹은 지방부)

나는 답변과 사진의 인쇄를 허가합니다.

서명

부모 서명(18세 미만인 경우)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중에는 형제 자매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말다툼하고 논쟁하더라도 그들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라건대, 언젠가는 그들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들을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 때문만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행복해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을 변화시키려 하지 말고 오히려 더 많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세실 오 사뮤엘슨 이세 장로, 칠십인, "Friend to Friend", *Friend,* 1996년 6월호, 6쪽.

미운 오리새끼인가, 당당한 백조인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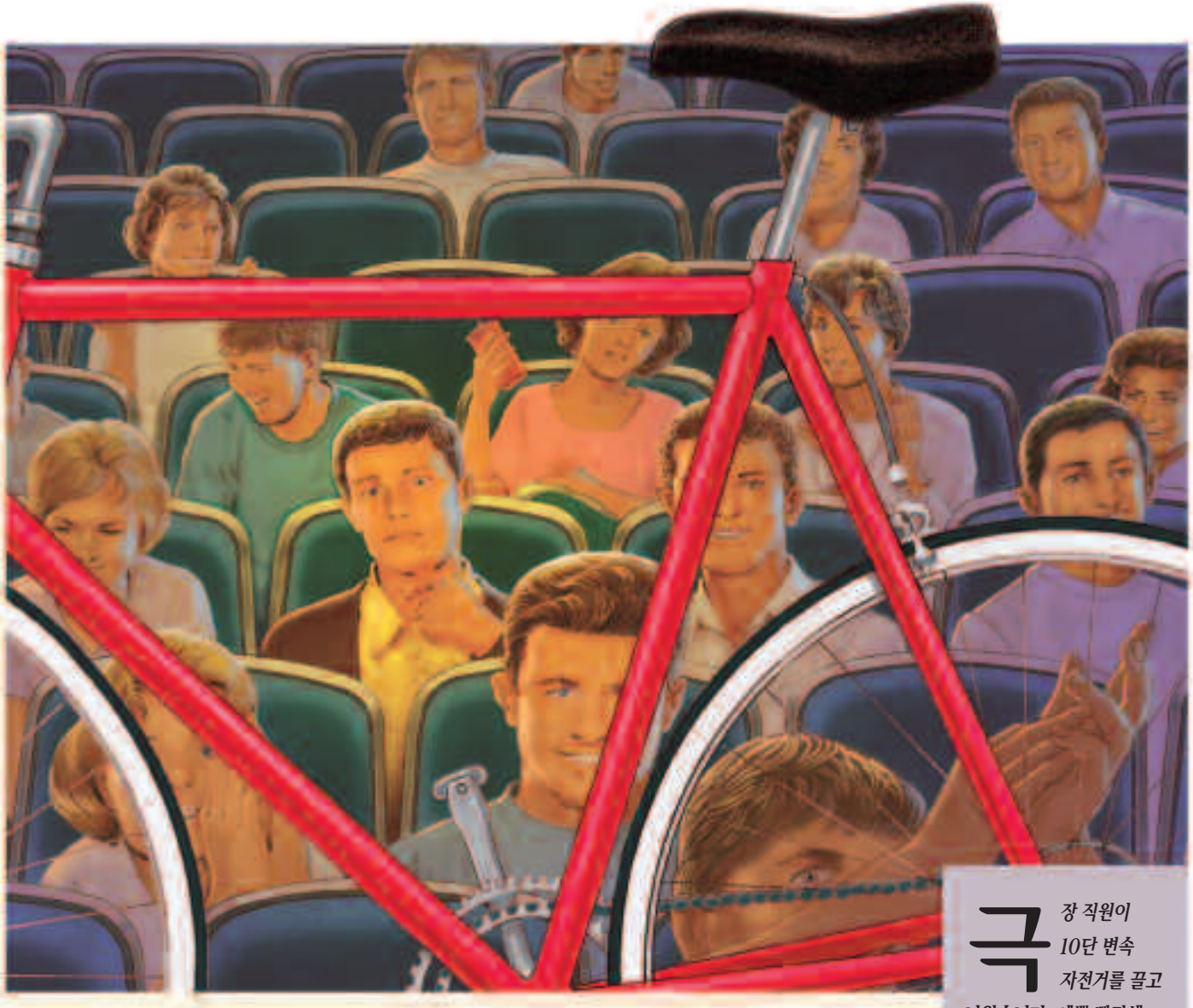
여러분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에게 내재된 신성한 잠재력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에롤 에스 피펜 장로
2004년에서 2009년까지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

제가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이 지은 "미운 오리새끼" 이야기를 읽어 주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어머니는 제가 소심하고 주변과 잘 어울리지 못한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때 경험과 그 이야기에서 배운 교훈은 늘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엄마 오리는 알이 부화하여 새끼 오리가 태어나기만을 끈기 있게 기다립니다. 오래지 않아 보송보송한 솜털로 덮인 노란 새끼 오리가 알을 깨고 나와 엄마 오리에게 기쁨을 안겨 줍니다. 그러나 아직 부화되지 않은 조금 큰 알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엄마 오리와 새끼 오리들은 기다리면서 지켜봅니다. 마침내 알이 깨지고, 노란 새끼 오리들은 이 새로운 가족이 자기들과 모습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립니다. 모두들 갓 태어난 새끼 주위로 모여들더니 엄마 오리와 아빠 오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얘는 우리랑 다르게 생겼어요. 정말 못생겼어!" 그리고는 미운 오리새끼만 둥지에 홀로 남겨두고 헤엄치러 가버립니다. 미운 오리새끼는 둥지를 떠나 어디든 숨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이들과 만나지만 매번 잘 풀리지 않고 실망할 뿐입니다. 미운 오리 새끼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못생겨서 모두 나를 싫어해.'

그런데 미운 오리 새끼의 삶에 기적이



극장 직원이 10단 변속 자전거를 끌고 나왔습니다. 예쁜 빨간색 자전거였습니다. 관객 중 입장권 응모에 당첨된 사람에게 상품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전거가 얼마나 탐났는지 모릅니다.

일어납니다. 자기와 똑같이 생긴데다가 행동도 똑같은 이들을 봅니다. 미운 오리새끼는 그들과 친해집니다. 그들은 미운 오리새끼를 자기들 엄마에게 데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엄마, 동생을 찾았어요. 우리랑 늘 같이 있어도 돼요?" 아름답고 우아한 엄마 백조는 흰 날개로 미운 오리새끼를 안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넌 새끼 오리가 아니란다. 넌 새끼 백조야. 훗날 이 연못의 왕이 될 거란다."

어렸을 때 저는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당시 그 이야기에서 배운 교훈이 힘든 십대 시절을 보낼 저에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여덟 살 때 침례를 받고 교회 회원이 되었지만, 가족들은 점차 저활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자란 아이다호 주의 작은 마을에는 극장이 하나 있었는데, 매주 토요일 오후에 상영하는 영화가 인기를 끌었습니다. 저는 항상 친구 두세 명과 어울려서 극장에 갔습니다. 극장에서는 운동 경기나 사회 현상을 소재로 한 단편 영화를 상영하기도 했습니다. 볼만한 작품은 대개 박진감 넘치는 카우보이 영화였습니다.

어느 토요일, 영화 중간에 있는 쉬는 시간에 직원이 10단 변속 자전거를 끌고 나왔습니다. 예쁜 빨간색 자전거였습니다. 관객 중 입장권 응모에 당첨된 사람에게 상품으로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자전거가 얼마나 탐났는지 모릅니다.

발표자가 상자에 손을 넣어 응모권 하나를 꺼냈습니다. 발표자가 응모권 번호를 읽었는데

삽화: 제리 하스틴, 명시된 부분 제외: 날개: 사진촬영: © Getty Images; 새: 사진촬영: 그레함 포드, © Getty Images

당첨된 사람이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온몸이 굳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너무 수줍고 당황스러웠습니다.

당첨된 사람이 바로 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온 몸이 굳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너무 수줍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일어나서 모든 사람에게 내가 바로 당첨자라고 알릴 만한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발표자가 당첨 번호를 두 번 더 외쳤지만, 저는 입장권을 뒤집어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결국 발표자는 다른 번호를 꺼내 읽었습니다. 그 번호는 바로 제 친구가 들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환호성을 지르며 벌떡 일어나 무대로 뛰어올라가서 자전거를 받았습니다. 제 것이 될 수도 있었던 자전거였는데 말입니다!

그 토요일에 영화관을 나와 홀로 집으로 걸어가면서 미운 오리새끼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이야기에 나오는 새끼 백조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숨을 곳을 찾아 숲 속을 배회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혹은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집에 도착할 쯤에 저는 제가 변화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성장할 때야. 그런 일은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을 거야." 하고 다짐하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제 주변에 저를 사랑하고 보살펴주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와드 감독단은 관심을 가지고 저를 지켜보셨고, 스테이크 회장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이 있던 길가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집에서 사셨던 그분들은 저에게 복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주의 실재성과 위대한 속죄가 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증하셨습니다. 조셉 스미스의 경험과 성스러운 숲에서 본 시현을 반복해서 읽어

주셨습니다. 그 경험 덕분에 저는 매주 조셉 스미스-역사를 읽는 훌륭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한 주 동안 제 앞에 놓인 장애물을 뛰어넘을 힘을 얻었습니다.

인생에서 누군가가 절실히 필요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누구인지 아셨고, 종을 보내셔서 제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분의 종들은 저를 껴안고 제가 미운 오리새끼가 아니라는 사실을 직접 모범으로 보여 주며 제가 합당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면 "연못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속죄가 전해 주는 축복과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저는 더 큰 힘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열여섯 살이 되자 이 훌륭한 분들은 축복사의 축복을 받으라고 권고해 주셨습니다. 추천서를 받아 들고서 낡은 자전거를 타고 축복사님의 집을 향해 수십 킬로미터를 달렸습니다. 축복사님은 저에게 축복사의 축복이 무엇이며 이를 통해 어떻게 인생에서 축복을 받게 되는지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 머리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 일 이후로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스코틀랜드에서 봉사하라는 선교사 부름을 받아들였고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귀환하고 몇 주 후에는 교회 모임에서 아내가 될 사람도 만났습니다. 데이트를 했고, 제가 청혼을 했습니다. 우리는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습니다.

제 축복사의 축복문에는 제가 지상에서 천사와 함께 살 것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축복사님에게서 축복을 받을 당시 저는 그 문구의 의미뿐 아니라 천사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내와 함께 인봉되고 성전을 떠나면서 저는 그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제 삶의 빛이었습니다. 아내 덕분에 저는 빛이 임하는 환경에서 생활해 왔습니다. 아내는 우리의 여덟 자녀와 스물다섯 명의 손자 손녀, 그리고 두 명의 증손자 증손녀에게 기쁨과 행복을 전해 줍니다. 자녀들은 모두 아내를 축복받은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복음이 가져다주는 축복과 거룩한 성전 성약 및 의식을 받을 때 얻는 영원한 축복에 감사드립니다.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거룩한 아들처럼 될 기회가 없는 미운 오리새끼라고 믿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특별한 방법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닐 에이 맥스웰(1926~2004) 장로님께서 종종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미치시는 영향력은 우리 삶 구석구석에서 나타납니다."[1]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주변 환경을 극복하고 복음이 가르치는 계명에 따른다면 "연못의 왕과 왕비"가 될 수 있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속죄가 전해 주는 축복과 그 의미를 이해하면서 저는 더 큰 힘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또한 여러분이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계시를 보면 우리는 전세에서 충실한 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요한계시록 12:7~11; 교리와 성약 138:56; 아브라함서 3:22~23) 그 숭고한 진리에 대한 간증이 있으면 하루하루는 우리 각자에게 훌륭한 축복이 되어 찾아옵니다.

주님의 편에 머무르십시오. 그분이 저처럼 소심하고 수줍어하는 소년도 돌보신다면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여러분에게 내재된 신성한 잠재력에 따라 생활하십시오. ■

주

1. 닐 에이 맥스웰, "Becoming a Disciple", *Ensign*, 1996년 6월호, 17쪽.

갓세마네의 그리스도 부분 확대, 하인리히 호프만, C. Harrison Conroy Co.의 허가를 받아 게재함.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답을 찾습니까?
캐나다 오타와에 사는 십대들은
기도가 시작점이라고 말한다.

위: 브리지테 레저, 제니 홀트, 도슨 리버트, 데이나 칸웨이, 레베카 웨거너, 알렉산더 리처 브룰은 온타리오 오타와 스테이크의 다른 청소년들과 함께(왼쪽) 하나님 아버지의 도움이 기도를 통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재닛 토마스
교회 잡지

열다섯 살인 제니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 말할 때 사과부터 한다. 제니는 자신이 거의 일 년 동안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않았음을 인정하며 미안해한다. 제니의 삶은 여러 가지로 순조롭지 못했다. 학교에서도, 친구 관계에서도, 교회에서도 그랬다.

어느 날 밤 제니는 영화를 보고 싶었다. 책장 맨 아래쪽에 있던 영화를 꺼내 보려고 몸을 굽히자 삼촌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삼촌은 얼마 전에 비극적으로 돌아가셨다. 불현듯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모든 걱정거리가 무겁게 나를 짓눌렀고 울고 싶은 기분이 들었다. "그 순간,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고 제니는 말한다. 제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기도는 이렇게 응답되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제 문제에 대한 답을 얻었어요. 모든 것이 다시 잘 되리라는 느낌을 받았죠. 다 괜찮을 거예요. 삼촌에 관해서도 이젠 걱정하지 않아요. 제가 학교와 친구들을 사랑한다는 것도 깨달았어요. 그리고 기도를 끝낸 즉시 교회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에게는 교회가 필요했으니까요. 아주 강한 느낌이었지요. 마음이 무척 편안하고 따뜻해졌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어떤 일을 겪더라도 저를 도와주시리라는 것을 알아요."

제니는 그 동안 이 기도에 대해 말하고 싶었지만 어쩐지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제는 그때 일을 떠올리기만 해도 당시와 똑같은 위안을 계속해서 느끼고, 응답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확신을 한결같이 느낀다.

제니 홀트는 캐나다의 아름다운 수도인 오타와 태생이다. 오타와는 나무가 우거진 오타와 강기슭에 세워진 도시다. 온타리오 오타와 스테이크 소속인 제니와 친구들은 기도가 어떻게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응답은 어디에서 오는가?

오타와 십대들이 토론한 가장 흥미 있는 주제는 어떻게 기도가 응답되었는가 하는 것이다. 수잔 브룩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응답을 듣고 싶다면 귀를 기울여야 해요."

수잔은 때때로 경전을 읽다가 응답을 얻는다고 한다. 다음은 그러한 예 중 하나이다. "하루는 그냥 너무 피곤해서 모든 사람에게 못되게 굴었어요. 말도 하기 싫었죠. 그때 경전을 읽은 게 기억나는데, 어느 부분인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런 성구가 있었죠. '겸손하라.' 순간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응답이었죠."(교리와 성약 112:10 참조)

애리아나 키스는 교회 모임에서 경청하여 듣는다. "우리가 하는 많은 기도가 교회 연사를 통해 응답된다고 생각해요. 축복사의 축복을 받고 싶었던 때가 있었는데 마침 저희 스테이크의 축복사님이 와드에 오셔서 말씀을 하셨었죠. 제가 축복사의 축복을 받기 한 주 전이었는데, 그것에 대해 아주 열심히 기도해 오던 중이었었죠. 그때 축복사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정말 좋았어요."

맥켄지 로프터스는 종종 가족을 통해 기도가

위, 맨 위부터: 프레드 킹과 로넌 필라몬트는 성찬 기도가 성스러운 것이므로 경건하게 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키핀 데 소우자는 가족 기도를 감사하게 여긴다.

오타와의 청소년들은 힘든 시기에 위안을 얻기 위해, 학교 과제 및 친구와 관련된 도움을 얻기 위해, 그리고 바라는 축복을 받기 위해 기도한다. 그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다. 도슨 리버트는 이렇게 말했다. "기대하는 응답을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한 응답은 받게 돼요."

위: 매트 라슨은 기도하기 전에 벽에 붙여 놓은 성구를 읽는다. 닉 물렌벡은 기도에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응답된다고 말했다. 맥켄지는 가족이 내린 결정에 대해 기도했다. "저는 바로 영을 느꼈고, 우리 가족이 내린 결정이 옳다는 것을 알았어요."

때로는 응답이 말 그대로 느릿느릿 온다고 느껴지는 경우도 있다. 토마스 프란시스는 가족과 함께 오타와로 이사왔을 때 새로운 학교에서 새 친구들을 사귀어야 했다. 토마스는 좋은 친구들을 찾게 해 달라고 기도했다. "하루는 우리 반의 한 아이가 제게 오더니 '와서 내 친구들 만나 볼래?' 하고 말했어요. 그 이후로 우리는 친구가 되었어요. 기도가 정말 도움이 되었죠."

도슨 리버트는 기도의 응답에 대해 상당히 중요한 말을 했다. "기대하는 응답을 못 받는 경우도 있지만 필요한 응답은 받게 돼요." 도슨은 때때로 응답을 그 즉시 알아차릴 수 없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어떤 것이 응답이었는지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야기를 나눌 사람

몇몇 청소년들은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좋은지 말했다. 키핀 데 소우자는 가족과 함께 매일 밤 기도하는 일을 매우 좋아하다. "우리는 순서를 정해 놓고 기도해요. 저는 영을 느껴요. 제가 집에서 멀리 떠나 있더라도 가족들이 제가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죠."

베네딕테 벨리자이레는 매일 아침 부모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제가 부모님 방으로 가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죠. 저는 성신이 함께 한다는 간증이 있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도움을 청할 거예요."

베네딕테의 친구 루스 데카디는 이렇게 말했다.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듣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해요. 우리 혼자만 있는 게 아니죠."

케이티 캐머론은 기도할 때 받는 느낌을 좋아한다. "주님께 이야기할 때는 실제로 저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주님께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죠."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청남들, 특히 로넌 필라몬트, 프레드 킹, 도슨 리버트와 대빈 리버트 같은 제사들은 와드 또는 지부 회원들을 위해 성찬 기도를 드리는 일에 대한 의미와 그 성스러운 의무에 대해 말했다.

도슨은 이렇게 말했다. "성찬 기도를 드리면 그 중요성에 대해 더 명확하게 생각하게 되죠. 신권 권세를 소유하고 있지만, 남용해선 안 되겠다고 느끼게 된답니다."

프레드는 제사 직분에 처음 성임 되어 성찬 기도를 드렸던 일을 기억한다. "처음에는 어려워서 계속 실수를 했어요. 거듭해서 다시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영은 몇 번을 하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결국은 제대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속삭여 주었어요. 느낌이 정말 좋았어요."

기도는 준비가 필요하다

몇몇 청소년들은 기도를 드리기 전에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다. 매트 라슨은 교리와 성약 78편 19절을 침실 벽에 붙여 놓았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자는 영화롭게 될 것이요, 이 지상의 것들이 그에게 더하여지리니, 백배 참으로 그 이상 더하여지리라." 이 성구는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한다는 점을 일깨워 준다. 매트는 기도를 드릴 때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는 점을 알고 있다.

닉 물렌벡은 이렇게 말했다. "원하는 것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하거나 마음과 영혼을 쏟지도 않은 채 구하기만 하면 기도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기적을 일으키는 기도의 힘

시에라 리버트는 기도라면 말해 주고 싶은 대단한 이야기가 있다. 시에라는 두 살이었을 때, 지나가던 말에 손이 밟힌 적이 있다. 엄지손가락은 부상 정도가 심각했고, 손가락 몇 개는 찢어져 속이 다 드러나 보였다. 부모님은 불가능해 보이는 치료를 기꺼이 맡아 줄 외과의사를 찾아 허겁지겁 이 병원 저 병원을 수소문했다. 시에라는 이렇게 말했다. "한 의사가 부모님께 말하길 외과의사가 수술을 성공리에 마치도록 기도를 하지 않았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러자 엄마가 한 명만 기도를 드린 게 아니라 여러 명이 기도를 했어요, 라고 답하셨다고 합니다. 엄마는 이미 성전에 전화를 걸어 기도 명부에 제 이름을 넣어 달라고 했던 거예요."

이제 열세 살인 시에라의 손은 제 기능을 다한다. 엄지손가락도 문제 없다. 시에라는 와드 청녀들이 보도록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인다. 친구들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시에라의 손에서 볼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엄지손가락 밑 부분을 둘러싼 희미하고 가느다란 흉터가 전부였다. 결과는 실로 놀라워 보였다.

시에라는 말했다. "기도 덕분에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면 기분이 좋아요. 제 삶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있죠."

"기도는 몸으로 익혀야 할 중요한 습관이에요." 하고 케일 로프터스가 말하자 모두 동의하는 것 같았다. ■

사진촬영: 제닛 토머스

기도에 관한 구주의 가르침

"너희는 항상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여야 하느니라.

"또 너희가 받을 줄로 믿으며, 옳은 것으로서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보라, 너희에게 주어지리라."(제3니파이 18:19~20)

위, 왼쪽부터: 루스 데케디, 케타 갤런트, 베네딕테 벨리자이레는 하나님 아버지께 성신을 보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한 목소리로 말한다. 아래: 케이티 캐머론, 캐롤라인 댈버스, 시에라 리버트는 기도할 때 받는 느낌을 무척 좋아한다.

단단한 뿌리를 움켜잡고

진흙이 허리까지 차오르자 나는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목이 터지도록 친구들을 불렀지만 윙윙대는 잠자리와 개구리 울음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러시아에서 학교를 다니던 어린 시절, 나는 두 소년이 숲에서 우연히 곰을 만났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세월이 흘러 나는 교사가 되었고, 그러던 어느 날 친구 몇 명이 함께 버섯을 따러 가자고 했다. 여전히 숲이 무서웠지만 그래도 같이 가기로 했다.

숲에 들어서면서 나는 나무 막대기를 집어들었다. 곰이 덤벼들면 방어라도 해야 하니 말이다. 친구들은 이내 찾고 있던 갈색 버섯을 찾아냈다. 나는 주황색 갓이 달린 버섯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들어섰다. 친구들과 멀어졌다는 걸 깨달았을 때 나는 이미 혼자였다.

나는 친구들을 찾아 헤매다가 미끄러져 넘어졌다. 버섯 바구니는 공중으로 날아갔지만 막대기만큼은 꼭 잡고 있었다. 일어서려다 보니, 내가 미끄러진 곳은 질척거리는 진흙 땅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무시무시하게도 나는 늪 속을 헤매고 다닌 것이다. 고무장화에는 금세 물이 들어찼고 몸이 가라앉기 시작했다. 다리를 움직여보려고 했지만 빠져 나오기는커녕 더 깊숙이 빠져들어갔다. 진흙이 허리까지 차오르자 나는 공포로 하얗게 질렸다.

목이 터지도록 친구들을 불렀지만 윙윙대는 잠자리 소리와 개구리 울음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 눈물을 뚝뚝 흘리다가 문득 어머니가 떠올랐다. 어머니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면 늘 기도를 하셨다. 종종 나더러 같이 기도하자고 하셨지만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은 없어요." 하고 거절했다.

그러나 이제 곧 무덤이 될지도 모르는 물 속에서는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나는 울부짖었다.

그러자 곧바로 아주 친절한 음성이 들려왔다. "두려워 말고 믿으라. 단단한 나무 뿌리를 움켜잡으렴."

주위를 둘러보니 뒤에 큰 나무 뿌리가 보였다. 들고 있던 막대기를 써서 그 뿌리를 잡을 수 있었다. 그랬더니 어떤 힘이 나에게 미쳐서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진흙투성이가 된 나는 마른 땅에 털썩 주저앉아 하나님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렸다. 그제서야 그분이 살아 계신다는 사실이 믿겨졌다. 나는 그분의 존재를 느꼈고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은 내가 빠져 나오도록 힘을 주셨다.

얼마 후, 복음 선교사들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성스러운 숲에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받았다고 가르치자 나는 그대로 믿었다. 하나님은 숲에서 내 기도에도 응답하시지 않았던가. 나는 복음의 단단한 뿌리를 꼭 붙잡고 곧이어

침례를 받았다. 지금은 아르메니아 지부에서 봉사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자녀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회원이라는 사실과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받은 다른 많은 축복에 감사한다. 특히 수년 전, 숲에서 무신론자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린다. ■

넬시다 하코뱐, 아르메니아

성전을 보러 왔습니다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봉사자로 일하던 어느 가을 날이었다. 누가 봐도 성전의식을 받을 만한 옷차림은 아닌 청년이 친구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섰다.

"성전을 보러 왔습니다." 청년이 말했다.

"성전 추천서가 있으신가요?" 하고 내가 물었다.

청년은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네. 미네소타 주에 사시는 어머니 친구 분이 몰몬이신데요, 그분이 우리보고 성전에 가 보라고 추천하셨어요."

나는 젊은이들을 한쪽으로 데려가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청년의 이름은 라스였다. 나는 라스에게 당연히 성전에 올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도 그러기를 바라신다고 설명했다. 그렇게 하려면 먼저 준비를 갖춰야 한다고 말하고 방법을 일러주었다.

당시는 내가 활동 회원으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때였다. 선교사로 봉사했지만 그 후에 오락 산업에 빠져 마약과 술에 손을 대면서 교회에 발길을 끊었다. 내 직업과 부에 가족들이 감격스러워 할거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니는 내가 누리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으셨다. 대신 늘 성전의 기도명부에 내 이름만 적어 넣으실 뿐이었다. 나는 그때 정말 화가 났다.

아내도 저활동 회원이었다. 여덟 살 난 딸 토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질문을 하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영적으로 바닥이 난 상태였다. 선교사로 봉사했음에도 구주에 대해서는 아무 기억도 나지 않았다.

"너한테 예수님에 대해 가르쳐 줄 만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과 얘기해 보면 어떨까?" 토리에게 말했다.

며칠 후, 자매 선교사 두 명이 우리 집 문을 두드렸다. 토리는 자매 선교사들을 안으로 들이고 토론을 시작했다. 옆방에서 자매 선교사들이 딸에게 교리를 가르치는 소리를 들으면서 나는 복음이 참됨을 인정했다.

"침례를 받으시겠어요?" 세 번째 토론이 끝나자 자매 선교사 중 한 명이 토리에게 물었다.

"네." 하고 토리가 대답했다.

"아빠에게서 침례를 받을래요?"

지난 20년 동안 교회를 다니지 않았지만 이제는 삶이 변화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마지막 몇 개 토론을 딸과 함께 들으면서 가족과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다. 아내와 같이 감독님을 만나기도 했다. 회개를 하면서 잃어버린 지난 세월을 메우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직업을 바꾸고, 교회 부름을 성실하게 수행하며, 아내와 딸과 함께 인봉되고, 성전 봉사자로 일했다. 그래서 나는 이 호기심 가득한 젊은 친구들도 성전에 오기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이듬해 봄, 라스는 성전 추천서의 진짜 의미를 알려줘서 고맙다며 편지를 보냈다. 그의 편지에는 "성전 추천서에 대해 정말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실은, 침례를 받고 지난 1월에 성전 추천서를 받았습니다." 하는 말이 씌어 있었다. 동봉한 사진에서 흰색 침례복을 입은 라스의 모습과 그를 가르친 선교사들을 보자 눈물이 났다.

성전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나는 놀라운 일들을 겪었다. 그리고 라스가 걸어온 여정에서 나는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의 삶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돌아보는 훌륭한 축복을 경험했다. ■

리스 브랜들리, 미국 유타 주

할머니의 침례식

2001년 6월 30일, 딸에게 줄 생일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브라질에 사는 언니였다.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했다.

슬픈 소식이었지만 그저 슬프지만은 않았다. 나의 소중한 할머니는 거의 102세까지 사셨다. 나는 할머니가 늙은 육신에서 벗어나 영의 세계로 가신 것이 기뻤다.

그러다가 할머니가 하필 딸 아이의 생일날에 돌아가신 것에는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일 년이 지나면 할머니를 위해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기 쉽지 않겠는가. 그 책임은 나에게 있었고, 이를 이루기 위해서는 딸의 다음 생일날까지 기다리면 되었던 것이다.

눈깜짝할 사이에 한 해가 지나갔다. 포르투갈에 살면서 스페인 마드리드 성전을 다녔기 때문에 정확한 할머니 기일에 맞춰 성전에 가지는 못했다. 그러나 조세피나 할머니를 위해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일을 거의 매일 되새길 수 있었다.

2002년 10월이 되어서야 우리는 성전에 갈 수 있었다. 남편과 나는 선교 사업을 나가기 전에 자신의 엔다우먼트를 받는 아들 매튜와 함께 갔다. 성전에 간다는 사실이 좋았고, 할머니를 대신해서 침례를 받으면 특별한 느낌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남편이 침례를 주었지만 별다른 느낌은 없었다. 아들이 확인을 했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아무런 느낌이 없어서 걱정했던 것도 잠시, 금세 할머니를 위해 의식들을 받았다는 사실에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다.

엔다우먼트가 끝나고 우리는 할머니를 증조부모님에게 인봉하려고 인봉실로 들어갔다. 의식을 집행하기 위해 우리가 제단을 사이로 무릎을 꿇고 인봉자가 말을 시작하자 마치 내 머리에 전율이 일어나며 그것이 몸을 관통하는 것만 같았다. 말로 표현하긴 힘들지만 그 뜨거운 순간 나는 조세피나 할머니가 자신의 부모님에게 인봉되는 일을 기뻐하리라는 확신이 들었다. ■

마릴레나 크레틀리 프레텔 부스토, 브라질 상파울로

집에 앉아 홀로 쓥쓸하게 보내느니 그 구호 단체에서 도움이라도 주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며칠 후, 나는 배고픈 사람들의 접시에 따끈따끈한 으깬 감자를 담아 주었다.

나와 남에게 힘이 되며

1990년 추수감사절이었다. 힘겹게 막 이혼을 마무리한 나는 어느 낯선 도시의 법대에서 1학년을 보내고 있었다. 자녀들이 명절 동안 남편 집에서 지낸다고 하는 바람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을 혼자서 보낼 판이었다.

처음엔 내 자신이 불쌍해서 마음먹고 울어 볼 작정이었다. 하지만 이내 내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보기 시작했다. 예쁜 두 아이가 있고, 멋진 집이 있고, 지식을 얻을 기회가 있고, 삶에 지침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지 않은가. 정말 많은 축복을 받았다.

추수감사절이 가까워지면서 한 법대생 그룹이 지역 구호 단체를 찾아갈 계획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집 없는 노숙자들에게 미리 추수감사절 저녁을 제공하는 일을 도우러 간다고 했다. 집에 앉아 홀로 쓥쓸하게 보내느니 그 구호 단체에서 도움이라도 주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여 그 학생들과 함께했다.

며칠 후에 나는 배고픈 사람들, 고마워하는 사람들, 삶이 뒤엉킨 사람들의 접시에 따끈따끈한 으깬 감자를 담아 주었다. 내 뺨에 흘러내리던 눈물은 자기 연민에 빠진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 사람들의 환경이 어떻든지 말이다.

그래도 오븐에 구운 칠면조 고기가 없으면 추수감사절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6킬로그램이나 되는 칠면조를 혼자 먹기에 너무 많아서 다른 나라나 멀리 떨어진 주에서 온 학생을 몇 명 초대해서 같이 먹었다. 처음엔 전통 미국식 추수감사절을 함께 나누려고 했지만 결국 친구들이 한 몫 단단히 했다. 각자 집에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을 해 오라고 했더니 결국 에그롤까지 곁들인 훌륭하고 잊지 못할 추수감사절 저녁식사가 되었다.

베냐민 왕은 이렇게 말씀했다. "그리고 보라, 내가 이러한 것을 너희에게 이야기함은 너희로 지혜를 배우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너희 이웃을 섬길 때 너희는 다만 너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임을 너희로 배우게 하려 함이니라."(모사이야서 2:17)

나는 그 추수감사절에 지혜를 배웠다. 집에 앉아서 우울함에 빠지는 편이 더 쉬웠을 때 봉사를 베풀면서 기쁨을 찾았다. 봉사는 내 삶에 뭔가 빠져있다는 생각에 사로잡히기 쉬운 휴일뿐만 아니라 일년 중 언제라도 행복의 문을 열어 주는 열쇠가 된다. 우리가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언제나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찾을 수 있다. 형제 자매들을 도우며 힘을 주다보면 우리도 힘을 얻는다. ■

캐시 위터커 마샬, 미국 워싱턴 주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여기 나온 제언들은 몇 가지 아이디어를 주기 위한 것이며, 가족의 상황에 맞게 적용할 수 있다.

"성전의 축복", 12쪽: 성전 사진을 보여 준다. 성전 사진 맞은편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가족 사진을 놓아 둔다. 이 기사를 요약하면서 가족 사진을 성전 사진에 점점 가깝게 옮긴다. 가족과 함께 성전에 가면 어떤 느낌이 드는지 묻는다. 교리와 성약 109편 7절에서 23절까지 읽고 성전에 가려면 그 밖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그리고 성전 의식에 참석하면 어떤 축복을 받는지 찾아본다.(또한 실비아 에이치 얼리드의 말씀, "거룩한 성전, 신성한 성약", 2008년 10월 연차 대회 참조)

"내가 이스라엘의 목자라고?" 30쪽: "돌아오는 길로 이끎" 부분을 읽고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목자가 될 수 있는지 토론한다. 어린 자녀를 위해 다음 활동을 할 수 있다. 서로 돌아가면서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숨바꼭질한다. 어떤 사람들을 "우리 안으로" 데려올 수 있을지 생각해 본다. 어떻게 그들을 도울지 인도를 구하는 기도로 마무리한다.(또한 에두아르도 가바렛 장로의 말씀, "집으로 돌아옴", 2008년 10월 연차 대회 참조)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40쪽: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을 요약한다. "이야기를 나눌 사람" 부분의 첫 단락을 다시 읽어 본다. 가족과 함께 기도하여 가족이 더 강화되었던 경험을 나누어 달라고 부탁한다. 타인을 위해 기도드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가 2008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전한 말씀인 "항상 기도하라"의 마지막 세 단락을 읽어 본다.

"토르티야로 일군 기적", 친6쪽: 이야기를 읽고 라울의 가족이 성전에 갈 준비를 하면서 겪은 도전에 대해 이야기한다. 가족과 토르티야를 만들어 보거나 옥수수를 심는 과정에서부터 관광객에게 토르티야를 만들어 파는 과정을 연기해 본다. 데니스 비 노인슈안더 장로님의 인용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한다.

복음을 적용하십시오

"영원한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 그것을 우리의 특별한 필요 사항에 충족되게 적용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추상적인 말로 표현되게 마련인 진리는 인간의 생활에서 구현될 때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브루스 알 맥콩키(1915~1985)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교사, 가장 중요한 부름*(1999년), 10쪽

이번 호의 주제들

각 페이지는 기사의 첫 페이지를 뜻합니다.

친 = 친구들
가르침, 22, 25
가족, 34, 친4, 친6, 친14
가족 역사 16, 18
간증, 친11
결혼, 친4
계명, 2
계시, 12, 40, 친4
관대함, 친8
관점, 36
기도, 40, 44, 친10
덕, 24
모범, 34, 친10
보살핌, 26, 30
봉사, 7, 16, 26, 30, 34, 47, 친2, 친13
부름, 30
사랑, 25, 26, 34, 친2
성전, 7, 8, 12, 16, 18, 45, 친6, 친13, 친14
성전에 갈 준비, 8, 12, 18, 45, 친6
순종, 2, 친10
양육, 25
영생, 8
우정, 8, 친10
우정증진, 18, 30, 36
인봉, 12, 18, 친6, 친14
일, 친6, 친8
의식, 12, 46
자애, 26, 44, 친2
지혜의 말씀, 친10
청지기 직분, 30
조셉 스미스, 친8
축복, 12, 16, 47
축복사의 축복, 36
침례, 7, 18, 44, 46, 친14
확신, 24, 36

기사 요청

여러분이 구주에 대해 더 잘 알게 된 경험이 있습니까? 회개와 용서, 속죄, 성찬 혹은 구주의 성역과 사명에 대해 어떻게 감사하고 이해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배운 점이나 경험한 것을 적어서 다음 주소로 보내주십시오.

liahona@ldschurch.org

2010년이 되면 독자들은 모든 연령층의 회원들과 각기 다른 배경의 회원들에게 더욱 유용하도록 제작된 새로운 리아호나를 받아볼 것이다.

2010년 *리아호나*: 같은 목표를 향한 새로운 접근

히더 휘틀, 교회 잡지

2010년 1월에 독자들은 기존 리아호나에 *토트 치엔스(독어), 오흐 부와(불어), 토파(사모아어)*라는 말로 작별을 고하고, 새로운 *리아호나*를 맞이하게 되었다.

독자들은 물론 앞으로도 계속 *리아호나*를 통해 영감 어린 교회 지도자들의 권고와 전 세계 교회 회원들의 이야기를 51개 언어로 접할 것이다. 다만 모든 연령층을 아우르고, 복음 안에서 각기 다른 경험을 하고 있는 회원들에게 더욱 유용하게 쓰이고자 *리아호나*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예정이다.

리아호나 편집장인 발 존슨은 이렇게 말한다. "점점 다양해지는 교회 회원들에게 *리아호나*가 더 가깝게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교회의 필요 사항에 부합하는 잡지가 될 것입니다."

리아호나 부편집장인 제니퍼 그린우드도 이같이 말했다. "독자들이 현재의 *리아호나*에 흡족해 한다는 걸 알지만 여기에 좋은 것을 더 찾아 보태고자 합니다."

시시로 바뀌더라

니파이는 부친 리하이가 발견한 둥근 공, 즉 나침반인 최초의 리아호나 위에는 "주의 길에 관하여 …… 이해하게" 해 주는 글이 적혀 있었고, 이 글은 "시시로 바뀌더라"(니파이전서 16:29)라고 기록했다.

존슨 형제의 말처럼 언제나 *리아호나* 잡지가 추구하는 목표 중 하나는 독자들이 주님의 길에 관하여 이해하도록 돕는 일이다. 2010년에 선보일 새로운 *리아호나*에서도 그 점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존슨 형제는 약속했다.

하지만 많은 변화가 계획되어 있다.

독자들이 주목할 첫 번째 변화는 새로운 디자인과 개선된 내용 구성이다. 손쉽게 내용을 찾고 이용하도록 새롭게 고안되었다.

청년 성인과 청소년, 어린이를 포함한 주요

독자층을 대상으로 글이 실리고 디자인되며, 각각 알아보기 쉽게 색깔로 표시한다.

또한 현재 *리아호나* 중심부에 삽입하는 몇몇 기사가 재배치된다. 어린이난은 특정 연령층을 위해 마련된 다른 기사와 함께 잡지에 통합되고, 교회 소식은 *리아호나* 뒷부분에 컬러로 선보인다.

특히 세계 각지 회원들이 보낸 글을 해당 지역 회원들과 함께 볼 수 있도록 정기 기고란을 마련했다. 이 부분에는 지역 회장단 메시지와 지역 소식, 행사, 간증, 신앙을 키워 준 경험 및 그 밖에 독자에게 영감을 주는 헌신적인 지역 회원들에 관한 내용과 기타 중요한 정보가 실린다.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다양한 연령층이 중요한 정보를 직접 적용해 보도록 유도하는 짧은 보충 기사가 실린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성전 예배를 권유하는 기사에는 성전 색칠하기 같은 어린이 활동이나 처음으로 성전을 방문한 십대들의 일화가 추가될 수 있다.

주님께서 예비하심

앨마는 아들에게 최초의 리아호나가 "주께서 예비하[신]"(앨마서 37:38) 것이라고 가르쳤다. 새로운 잡지 제작에 참여한 사람들도 이러한 변화에 대해 같은 말로 표현하고 싶어한다.

그린우드 자매는 이렇게 말한다. "여러 혁신과 새로운 디자인이 탄생한 것은 그야말로 계시의 과정이었어요. 모든 과정에서 주님의 손길을 보았죠."

교과 과정 부서 최고 책임자이자 교회 잡지 편집 발행인인 제이 이 젠슨 장로가 다양한 독자층의 필요 사항에 부합하는 새로운 *리아호나* 표준을 만들도록 팀

*리아호나*에서 새롭게 개선된 부분

복음 고전에서는 총관리 역원들이 했던 말씀과 함께 특별히 이와 관련된 기사를 강조하고, 간략한 저자의 약력을 싣는다.

내 인생의 복음에서는 복음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해 청년 성인이 또래들과 나누는 간증이 실린다.

나는 어떻게 아는가에서는 교회 청소년들이 간증을 얻은 경험을 나눈다.

상자에는 애독자 편지에서 발췌한 글이 실린다.

독자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후기 성도의 소리**에는 이제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이야기도 실을 계획이다.

교회 소식은 *리아호나* 뒷부분에 실리며, 각 지역에서 만든 지역 뉴스가 중간에 삽입된다.

우리 가정, 우리 가족은 가족들의 형태는 각기 다르지만 그 가족 생활을 개선하는 데에는 똑같이 도움이 될 기사를 싣는다.

우리들의 페이지는 어린이들에게 그림이나 경험, 간증을 나눌 기회를 준다.

우리들의 공간에서는 청소년의 견해와 통찰력, 경험을 청소년들의 목소리로 전한다.

나에게 필요한 질의 응답은 제시된 한 가지 질문에 대해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보내 준 대답을 모아 싣는다.

교회 봉사는 부름에 더 충실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된 짤막한 글이다.

작고 단순한 일들은 짧지만 흥미로운, 교회에 대한 정보나 사실을 알려준다.

부드러운 자비에서는 곤경에 처했던 독자들이 주님의 축복을 받고 신앙이 성장했던 경험을 나눈다.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에서는 청년 성인에게 전하는 총관리 역원의 최근 말씀과 기사, 노변의 모임을 강조한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는 복음에 대한 식견을 적은 글로, 매달 잡지 뒷부분에 실린다.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은 오로지 구주와 그분의 속죄, 그리고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가 믿는 것은 교회의 기본 교리를 알려주는 시각 자료로, 개종자 및 신회원을 위해 마련되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구주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배우고 이와 관련된 그림을 곁들였다.

구성을 승인한 2008년 7월부터 모든 과정이 시작되었다.

여섯 달 동안 이어진 아이디어 회의, 집필과 계획, 시험을 거쳐 2009년 1월에야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승인을 받은 최종안이 완성되었다.

리아호나 부편집장인 아담 올슨은 이렇게 말한다. "혹독한 경험이었죠. 매달마다 *리아호나*를 만드는 일에도 매달려야 했거든요. 주님의 도움에 의지하지 않고서는 그 두 가지 일을 다 해낼 수는 없었죠."

*리아호나*는 보통 1년 앞서 계획되기 때문에 새롭게 바뀐 *리아호나*가 2010년 1월에 공개되려면 즉시 새로 승인 받은 변화를 이행해야 했다.

존슨 형제는 "'생각이 둔하여져'(교리와 성약 9:9) 있던 순간에 번뜩 하고 영감이 떠올랐던 일들을 경험하며 이 일은 분명히 우리 힘으로만 해낸 게 아니라는 간증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도와주셨죠." 하고 말했다.

그리스도의 말씀

니파이는 리아호나 위에 쓰여진 글이 "읽기에 명백"했으며 "주의 길에 관하여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게 하는 것이었[다]"(니파이전서 16:29)라고 했다. 앨마는 리아호나가 니파이 가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주었던 것처럼 "정녕 그리스도의 말씀은 우리가 그 진로를 따를진대, 이 슬픔의 골짜기 너머 훨씬 더 나은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데려다 줄 것"(앨마서 37:45)이라고 약속했다.

그리스도의 종을 통해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인 제일회장단 메시지를 시작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마련된 마지막 글까지 리아호나에 실리는 모든 기사가 추구하는 목표는 독자들이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돕는 것이다.

존슨 형제는 이렇게 말한다. "*리아호나*에 많은 변화가 생겼지만 목표는 여전히 똑같습니다.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오는 일이죠."

교회 잡지 편집인인 스펜서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리아호나*는 계속해서 전 세계 성도들에게 제일회장단이 선포하는 예언의 음성을 전할 것입니다. *리아호나*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후기 성도 가정에서 읽혀지길 바랍니다." ■

오케스트라, 템플스퀘어에서 10주년 축하 공연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 템플스퀘어 오케스트라는 1999년 10월 16일에 공식적으로 조직되어 금년 3월말에 두 번의 봄철 연주회를 열어 10 주년을 장식했다.

고든 비 힝클리(1910~2008) 회장의 구상에 따라 조직된 이 오케스트라는 다양한 연령층과 배경을 가진 음악가 100여 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 내의 음악 기구를 강화하기 위해 이 오케스트라를 만들었다.

태버내클 합창단장인 맥 크리스턴슨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것을 힝클리 회장님의 오케스트라라고 부릅니다. 힝클리 회장님은 비전을 가지고 오케스트라를 소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오케스트라가 어떻게 발전할지도 아셨습니다. ……
오케스트라가 특별히 더 위대한 이유는 단원들 모두가 선교사로 성별되었다는 점입니다. 단원들은 대가를 받지 않는 자원 봉사자들입니다. 저는 이 오케스트라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자원

봉사 오케스트라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오케스트라 활동 외에 다른 음악 활동을 하며 생활비를 벌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대학 교수, 엔지니어, 치과의사, 변호사, 의사 및 기타 여러 전문업종에 종사한다. 오케스트라에는 여러 "전업 주부"도 있다고 케시 앤더슨은 설명했다. 그녀는 심장학자인 남편 제프와 함께 오케스트라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한다.

오케스트라는 주중에 텔레비전과 라디오 방송인 음악과 진리의 말씀을 포함하여 연주회와 태버내클 합창단 녹음 등 왕성한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케스트라는 *회복의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에머 스미스: 나의 이야기* 사운드 트랙을 연주하고, 나부 성전 공개 관람 기간 및 커틀랜드 방문자 센터 개관식에서도 연주했다. 오케스트라는 단독 연주회도 열지만, 템플스퀘어 성가대 반주도 맡아 한다.

2003년 11월 12일, 오케스트라와 태버내클 합창단은 조지 더블류 부시와 영부인 로라 부시에게서 국립 예술 메달을 받았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은 2008년 그래미상 후보에도 올랐다.

오케스트라 연주자는 최소한 10년 이상 악기를 연주해 온 경력자들로, 하루에 두세 시간씩 일년에 총 800여 시간 동안 연습에 임한다고 메러디스 캠펠 악장은 추정했다.

템플스퀘어 오케스트라 및 몰몬 태버내클 합창단 관리 책임자인 배리 앤더슨 형제는 "오케스트라에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 모여 있어요." 하고 말했다.

합창단을 위해 연주를 하는 일은 앤더슨 자매가 평생 동안 품어 온 꿈이다. 그녀는 "전 늘 이렇게 제가 어떤 일을 해냈으면 하고 소망했었죠. 이고르와 함께 연주하는 일도 역시 꿈 같은 사건이에요." 하고 말한다.

우크라이나 태생인 오케스트라 지휘자 이고르 그루프만은 1999년에 오케스트라를 창단할 때 아내인 베스나와 함께 공동 수석 연주자로 지명되어 지금까지 계속 오케스트라와 함께 해 왔다. 그리고 2003년 8월에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임명되었다.

그루프만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오케스트라 단원들의 놀라운 재능과 헌신을 보며 자극을 받습니다. 모두 자원봉사자라서 오케스트라 활동을 하려면 음악에 대한 정말 큰 열정이 있어야 하죠. 단원들은 모두 연주에 영을 실어 전한다는 우리의 사명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꿰뚫고 있죠."

봄철 연주회는 세계적인 집단 학살에 희생된 사람들을 기리는 자리였다.

그루프만 형제는 봄철 연주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무척 까다로운 프로그램이었어요. 오케스트라도 힘들었죠. 슬픔과 죄책감, 상실감이 후에 빛으로 바뀌고 희망이 도래한 뒤 영이 임하는 아주 강렬한 그 과정을 청중에게 고스란히 전하는 일은 정말 쉽지 않았죠." ■

템플스퀘어 오케스트라가 2009년 10주년을 기념하며 태버내클 합창단과 공연하고 있다

회원과 선교사에게 도움이 되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킴벌리 보웬, 교회 잡지

첫 출판 이후 5년 동안 거의 이백만 부가 인쇄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는 선교 사업에 참여하는 선교사와 회원에게 언제나 유용하다.

이 지도서는 전임 선교사 전용 [지침서]로 마련되었지만 처음부터 교회 지도자들은 회원들도 그 지도서를 숙지하여 회원 선교사로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가르칠 수 있게 준비하라고 권유해 왔다.[1]

칠십인 정원회의 에릭 더블류 코우피쉬케 장로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공부하면 선교사를 더 잘 이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 생활에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2] 라고 말했다.

선교사 자료

2004년 10월 15일, 선교부 회장 훈련 모임에서 발표된 이 지도서는 선교 사업의 원리뿐만 아니라 기본 복음 교리도 실려 있다.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및 그 밖의 총관리 역원과 선교부 팀이 지도서 개발을 감독했다.

코우피쉬케 장로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가 선교사 자료로 쓰이면서 "선교 사업에 실로 커다란 혁신을"[3] 가져왔다고 말했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는 이렇게 말씀했다. "선교사들은 세상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회복과 구원의 계획, 주요 계명, 복음 율법과 의식을 그들의 생각과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은 이제 이 내용을 자신의 말로, 영의 인도에 따라 가르칩니다. 이런 방법에 집중한 후부터 선교 사업의 성과가 급격하게 향상되고 있습니다."[4]

일본 고베 선교부 회장인 윌리엄 에이 맥킨타이어 이세는 선교부에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초점을 맞추어 선교 사업을 하는 선교사들이 선교 사업 방법뿐만 아니라 선교사가 되는 방법도 배웠기 때문에 더 행복하고 효과적으로 일하며 선교 사업에 임하는 더 큰 동기를 얻는다고 말했다.

지도서 활용 방법

그러나 예전에 사용하던 선교사 자료와는 달리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스코트 장로의 말처럼 "선교사들만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서 유익을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회원들에게도 널리 배포되도록 계획되었다.

스코트 장로는 "자녀에게 선교 사업을 준비시키는 부모, 새로운 개종자를 돕는 교회 지도자, 복음을 나누는 회원이나 봉사할 준비를 하는 사람"[5]에게 이 자료가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직접 알아보라고 권고했다.

우크라이나 도네츠크 선교부 회장인 티모시 엘 프라이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이 지도서는 복음 원리를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상관없이 모든 교회 회원에게 유용하게 쓰이도록 계획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훌륭하고 영감을 주는 학습 지도서이며 교회 회원들이 우리 구주에 대한 지식과 간증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지도서의 13개 장 안에는 영을 더 잘 인식하고 이해하는 방법, 개종 과정에서 몰몬경이 하는 역할, 경전 공부 기술, 중독을 극복하는 방법, 복음을 나눌 기회를 찾는 방법과 같은 중요한 복음 원리들이 실려 있다. 또한 학습 메모 및 적용을 위한 제언들도 나온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5년 전에 소개된 이후 거의 2백만 부가 팔렸다.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 관리 책임자인 리차드 히턴 형제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사실 단순한 독서 자료가 아니라 직접 공부를 해야 하는 책입니다. 여러분이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바탕으로 공부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경전입니다."

리차드 히턴 형제는 지도서에 많은 참조 성구가 실려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성구를 활용하면 교리를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은 처방전도 아니고 선교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는 점검표도 아닙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여러분이 복음을 가르칠 때 영감을

회원과 선교사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공부하여 유익을 얻을 수 있다.

이끌어내는 자료 모음집입니다."

6장은 그리스도의 속성을 기술하고 자기 평가 활동을 하며 장을 마친다. 8장은 목표 설정, 주간 및 일일 계획, 보고 책임과 같은 시간 관리 원리가 실려 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활용 방법

PreachMyGospel.lds.org에서 43개 언어로 번역된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를 PDF와 MP3파일로 무료 이용할 수 있으며 교회 배부 센터에서 한 권에 5,500원, 22권 묶음을 121,000원에 구입할 수 있다.

지도서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 이 책을 공부한다. 배운 내용을 적용한다. 여러분이 하는 일을 평가한다. 매일 자신을 준비하려 노력하고 정기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선교사들은 성신의 인도를 받고 그들의 생활에서 축복을 경험할 것이다."[6]

회원과 선교사를 하나로 만듦

코우피쉬케 장로는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가 선교 사업을 진척시키는 일에서 회원과 선교사를 하나로 만드는 힘을 발휘한다고 가르쳤다.

코우피쉬케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 집중하는 선교사들은 중요한 원리와 교리를 배우고 적용하면서 더욱 더 유능한 선교사가 됩니다. 물론, 그렇더라도 여전히 선교사들은 우리의 도움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유용한 아이디어와 통찰력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복음을 가르칠 사람을 찾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과 구도자를 돕기 위해 회원과 선교사가 어떻게 함께 일할 수 있는지 가르쳐 줍니다."[7]

십이사도 정원회의 엘 톰 페리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전 세계에는 5만 명 이상의 전임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선교사들이 교회 역사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가장 훌륭한 교사가 되게 해 주었습니다. …… 전임 선교사를 위해 여러분과 제가 구도자를 찾는 일에 조금 더 주력하고, 선교사들이 사람을 찾는 일보다 우리가 찾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면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8] ■

주

1. 리차드 지 스코트,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의 힘", *리아호나* 2005년 5월호, 29쪽 참조.
2. 에릭 더블류 코우피쉬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회원과 선교사를 하나로 만드는 도구", *리아호나*, 2007년 11월호, 33쪽.
3. 에릭 더블류 코우피쉬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33쪽.
4. 리차드 지 스코트, "힘", 29쪽.
5. 리차드 지 스코트,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의 힘", 29쪽 참조.
6.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 사업 지도서*(2004년), vii
7. 에릭 더블류 코우피쉬케,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33쪽.
8. 엘 톰 페리, "영혼들을 내게 데려오라",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110쪽.

2010년 교과 과정에 개정된 *복음 원리*가 소개되다

2010년 1월 초에 성인 회원들은 2년 동안 매달 둘째, 셋째 일요일에 새롭게 개정된 *복음 원리* 책을 공부할 것이다.

1998년 이후부터 성인 회원 대부분은 신권 정원회와 상호부조회 교실에서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을 공부해 왔다. 그 동안에도 수백만 명이 교회에 가입했다. 다시 한 번 기본 복음 원리와 교리 공부를 하는 일은 새로운 회원뿐만 아니라 기존 회원들에게도 축복이 될 것이다.

새로운 *복음 원리* 판은 더 크게 만들어진다. 또한 가르침에 어울리고 더 읽기 쉽게 디자인되었다. 각 장에 한 개씩 있는 시각 자료는 모두 컬러로 인쇄된다.

공과반이나 가정에서 사용하도록 공과

2010년 1월부터는 멜기세덱 신권회 및 상호부조회 공과 시간에 개정된 복음 원리를 공부하게 된다.

가르침을 위한 유의 사항이 새롭게 보강되었다. 이 내용은 간결하게 편집된 소개 부분에 포함된다. 추가 유의 사항은 공과 전체의 각주에 실리게 된다.

각 장에는 대부분 항목 첫 부분에 질문이 실려 있는데, 이 질문에 답해 보면서 해당 공과가 전하는 주요 내용에 주의를 집중할 수 있다. 각 항 끝에 있는 질문은 내용을 숙고하고 적용해 보도록 유도한다. 공과 시간에 교사는 활발한 토론을 이끌어 내기 위해 질문 부분을 사용할 수 있다.

칠십인 정원회의 케네스 존슨 장로는 이렇게 말했다. "원리와 교리를 깊이 생각할수록 더욱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교리와 원리는 결코 낡지 않으며, 더 깊고 확실하게 깨달을 뿐입니다. 진리는 단순한 지적 지식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영을 동반할 때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신회원과 구도자, 그리고 다시 활동 회원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가르치는 복음 원리반 교사도 새로운 공과책을 사용하겠지만, 공과에서 내용이 겹치는 일은 생각보다 적을 것이다.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반은 보통 한 달 중 두 주에 걸쳐 순서대로 복음 원리 공과를 가르칠 것이다. 복음 원리반 교사는 반원들의 [상황에] 가장 적절하게 순서를 조정하여 공과를 가르치게 되어 복음 원리반 참석 회원들도 특정 기간 동안 종종 그렇게 수업을 받게 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복음 원리반 반원들은 복음 교리반에 참석하게 된다.

회원들은 일요일 공과 시간에 그 책을 공부하고, 여기에 덧붙여서 복음의 핵심 원리와 교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혼자서 그 책을 공부할 수도 있다. 부모들이 가정에서 자녀에게 교리를 가르칠 때 이 책에 실린 새로운 소개와 질문, 그림, 유의 사항을 사용할 수 있다.

2012년부터는 다시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을 공부할 것이다. ■

재난 대응

회원들, 브라질 홍수 구호품 제공

두 달 간 지속된 이상 폭우로 홍수가 일어나 최소 40명이 사망하고 80만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한 브라질에서 테레시나 스테이크와 이타코아치아라 지방부 회원들이 구호 활동을 돕고 있다. 교회 회원이나 선교사 중에 사망자는 없었지만 회원 여덟 가족이 홍수 피해를 입었다. 이번 홍수로 아마존에서부터 대서양 해안, 도로, 고속도로 및 10개 주가 물에 잠겼다.

캘리포니아 화재로 이재민이 된 회원들

남 캘리포니아에서 3,640평방미터에 이르는 지역이 산불에 휩싸였다. 좋은 기상 상태 덕분에 산불은 진압되었지만 이재민 5만 명이 발생했으며, 그 중 약 70퍼센트는 산타 바바라 와드 회원들로 추정된다. 엘 커미노 와드, 골레타 밸리 와드, 로스 올리보스 지부의 여덟 가구도 대피 명령을 받았다. 교회 회원 한 집을 포함하여 80개 이상의 구조물이 파괴되거나 손상되었지만 교회 건물은 피해를 입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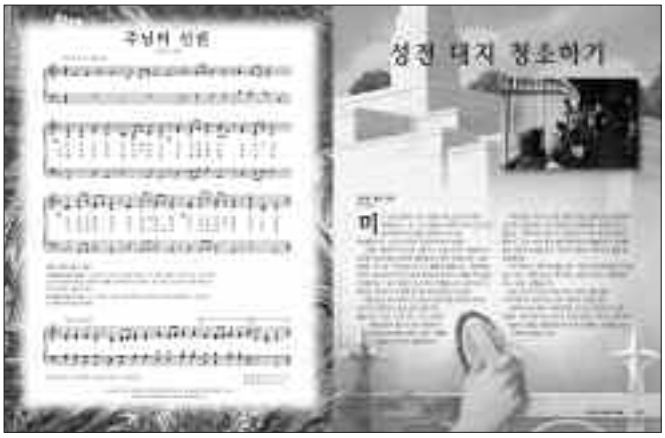
2009년 10월호 함께 나누는 시간을 위한 보충 제언

다음은 초등회 지도자들이 2009년 10월호 리아호나에 실린 함께 나누는 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보충 제언이다. 제언에 해당하는 공과와 유의 사항 및 활동에 대해서는 이번 호 친구들 4쪽과 5쪽에서 "우리는 가족이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라고 믿는다 "를 참조한다.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은 우리 가족이 행복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복사하여 모든 어린이에게 나누어준다. 어린이들이 7번째 단락을 보고 *행복*이란 낱말에 동그라미를 쳐보게 한다.(어린 아이들은 교사나 나이가 많은 어린이들이 도와준다.) "가족 생활의 행복은"에서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까지 읽는다.

종이 조각 아홉 개를 준비하여 각 종이에 다음에 나오는 원리를 하나씩 적는다. 신앙, 기도, 회개, 용서, 존경, 사랑, 자비, 일, 가족 활동. 원리를 설명하는 그림을 순서에 상관없이 전시한다.(예: 신앙: 복음 그림 패킷 318[주의 손가락을 본 야렛의 동생]; 기도: 605[기도하는 어린 소년]; 회개: 321[앨마 이세의 개종]; 용서: 230[십자가에 못박히심]; 존경: 611[감독]; 사랑: 213[소경을 고치시는 그리스도]; 자비: 420[어린이들을 사랑한 선지자 조셉]; 일: 615[서로 사랑함]; 가족 활동: 616[가족이 함께 함]) 어린이들이 종이를 한 장씩을 뽑게 한다. 교사의 도움을 받아 그 원리가 어떻게 자신의 가족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지 반원들 앞에서 발표해 보게 한다. 그런 다음, 그 원리를 설명하는 그림이 어떤 것인지 모든 어린이가 맞춰보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르면 가족을 도울 수 있다고 간증한다.

2.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은 우리 가족에게 일의 중요성을 가르친다.** 여러분이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7번째 단락에서 "성공적인 결혼과 가족은"부터 "건전한 오락 활동 등의 원리 위에서 이루어지고 유지된다."까지 읽는 동안 어린이들은 아홉 가지 원리를 손가락으로 꼽아 본다. 어린이들이 여덟 번째 원리(일)를 기억하는지 본다. 일의 중요성과 가치를 가르치기 위해 제일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하는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어린 시절에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학교에 가기 전 시간과 학교를 마친 후에 부모님이 운영하던 세탁소에서 세탁물을 배달하는 일을 했다. 몇 년 동안이나 세탁물 수레를 매단 크고 무거운 자전거를 타고 마을 길을 오르내려야 했는데,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그때 일을 이렇게 말했다. " 때로는 손수레가 너무 무겁게 느껴졌고, 일이 너무 힘들어서 폐가 터져버릴 것 같았습니다. 숨을 고르기 위해 자주 멈춰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에게 수입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저는 제 역할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길이었습니다."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소년 시절에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가족을 돕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오랜 세월 후에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그 힘든 일이 당시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폐질환을 고쳐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세탁소 배달원으로 일하면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규칙적으로 운동한 것이 이 질병을 고쳐 준 주요 요인이었다"고 말했다.("시작부터 끝을 보십시오", *리아호나*, 2006년 5월호, 43쪽)

질문: 세탁물을 배달하는 일이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의 가족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은 가족을 돕기 위해 어떤 일을 하나요?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은 자전거를 타고 세탁물 수레를 끄는 일이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 중에 어떤 것이 힘듭니까? 힘들었던 그 일은 가족을 돕는 것 외에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었습니까? 힘들게 일하는 것이 어떻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됩니까? ■